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지윤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202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지윤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지도교수 조 정 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 악 교 육 전 공

정 지 윤

정지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김 지 현 (인)

위원 허 효 정 (인)

위원 조 정 은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ii
그 립 목 차	vi
국 문 초 록	vii
ABSTRACT	ix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4.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5
1. 음악교육과 STEAM 교육	5
2. 선행연구의 고찰	7
III. 연구의 방법	11
1. 연구 절차	11
2. 연구 대상	12
3. 연구 도구	13
4. 자료 분석	16

IV. 연구의 분석 및 결과	17
1.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인식	17
2.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실태	21
3.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	34
4.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문제점	63
5.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	76
V. 결론 및 제언	90
1. 결론	90
2. 제언	94
참고문헌	96
부록	101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
<표 2> 설문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표	15
<표 3> 음악중심 융합교육 인식	17
<표 4>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전인교육	18
<표 5> 예술융합의 학습방식	19
<표 6> 현상에 대한 융합적 사고	20
<표 7> 융합교육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 방안	20
<표 8>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인성적 영향	22
<표 9> 중·고등학교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23
<표 10>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다른 교과 중심의 차이	24
<표 11>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 횟수	25
<표 12>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개선 요소	26
<표 13>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어려운 점	28
<표 14>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필요한 교사 역량	29
<표 15> 융합교육과 관련한 지원	30
<표 16>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학생, 학부모의 인식	31
<표 17>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	33
<표 18> 음악과 융합의 교과 영역	35
<표 19> 위(1번 문항)의 교과 선택 이유	36
<표 20>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차시 구성	38
<표 21>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교재연구 시간	39
<표 22>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구성의 중점 사항	40
<표 23>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평가 활용	41

<표 24>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느낀 점	43
<표 25> 최근 3년 이내 음악중심 융합수업 횟수	44
<표 26>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계획	45
<표 27>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정보수집 방법	46
<표 28>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위한 연수의 관심	47
<표 29> 음악중심 융합수업 기피 이유	49
<표 30> 음악중심 융합수업 필요성	50
<표 31> 향후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계획	51
<표 32> 음악중심 융합수업에 대한 학생의 요구	52
<표 33> 음악중심 융합수업에 대한 우선적 교과 영역	53
<표 34> 연간 1회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설계일 경우, 적합한 횟수	55
<표 35>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의 교육과정 편성	56
<표 36> 향후 음악중심 융합수업에 우선시 되는 행·재정적, 제도	57
<표 37> 위의 질문 외에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에 중요 부분	58
<표 38>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59
<표 39>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학습 형태	60
<표 40> AI 관련 음악 융합수업 주요 요소	62
<표 41>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	63
<표 42> 음악중심 융합교육 적용의 수업시수	64
<표 43> 음악중심 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65
<표 44>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평가	66
<표 45>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학생 수준 차이	67
<표 46>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교사 전문성	68
<표 47>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다양한 교수법 활용	68
<표 48>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타 교과에 대한 지식	69
<표 49>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참여	70

<표 50>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실생활 관련 프로그램 개발	71
<표 51>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수업 및 업무 부담 증가	72
<표 52>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각종 공문서 및 행사 발생	73
<표 53>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학생의 수업 부담	74
<표 54>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교육과정 개편	74
<표 55>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평가 체계	75
<표 56>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창의적 사고력	76
<표 57>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실생활 적용력	77
<표 58>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감성적 체험	78
<표 59>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예술성 개발	79
<표 60>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타 교과와의 연계	80
<표 61>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개선과 교사의 재량권 확보	81
<표 62>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82
<표 63>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범제화된 시수 확보	82
<표 64>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83
<표 65>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학생, 학부모의 인식	84
<표 66>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동료 장학	85
<표 67>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교재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86
<표 68>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87
<표 69>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연수 참여 기회 확대	87
<표 70>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융합교육 전담 교사 양성	88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절차	11
[그림 2] 연구 대상자의 현재 담당하는 음악교과의 주당 시수	13
[그림 3]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	34

국문초록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정 지 윤

교육학과 음악교육 전공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재의 중·고등학교 중 54개교 현직 음악교사 5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별(성별,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관한 관심도, 현재 담당하는 음악교과의 주당 수업 시수)로 나타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인식에서는 음악 교사들이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 수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운영 현황에서는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 평가 결과의 환원,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향 등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운영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이 수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교재연구 시간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어 기피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향후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며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하는 부분 또한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한 학급 내 학생들의 수준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이는 한 학급 내 학생 수의 과다로 인한 음악중심 융합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으며 적어도 이 연구에 참여한 음악 교사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앞서 언급한 학급 내 학생들의 수준 차이로 인한 어려움의 해결 방안으로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재량권 확보, 수업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끝으로 학교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과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음악중심 융합교육, 융합인재교육(STEAM),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Jeong, Ji-Yun

Advisor : prof. Cho, Jung-Eu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operational status of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music teachers and to prepar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based on this. Accordingly, 56 incumbent music teachers in 54 out of 16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nationwide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for the operation of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an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school level, educational experience, training experience related to convergence education, interest in convergence education, and the number of class hours per week in the music subject currently in charge)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sults derived accordingly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generally had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and it was difficult to see it as a lack of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because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was not actively conducted in the field.

Second, in the perception of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music

teachers were generally well aware of how to organize music-centered convergence classes and what needs to be prepared for this class to be effective.

Third, teachers with operational experience responded more positively to the reduc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willingness to continue operating, and teachers with no operational experience recognized the need for this class, but avoided it due to difficulties due to lack of textbook research time. However, he was willing to operate in the future and recognized the areas that should be prioritized in operating music-oriented convergence classes.

Fourth, as a problem with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students in one class were highly aware of the difficulties caused by differences in levels. It was difficult to see that music-centered convergence classes were not actively conducted due to the excessive number of students in one class, and at least music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considering solutions to such problems in various aspects.

Fifth, as a way to revitalize music-oriented convergence education, there was a high awareness of securing teachers' discretion for convergence education and developing and sharing various programs that could be applied immediately to classes as a solution to the difficulties caused by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tudents in the class mentioned above.

Finally, in order for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to be effectively operated in the school field, difficulties and problems may appear i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derive a solu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supplement the future operation plan for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by deeply analyzing the opinions of teachers in the field who want to apply it to class through practical case studies.

* **Keyword:**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Convergence talent education (STEAM), Music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삶에 적용하여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교육과정에서는 전인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학습자가 길러야 할 필수적인 능력을 양성하고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총론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 역량인 심미적 감성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은 각 교과마다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는데, 음악과는 음악 정보처리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감성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융합 사고 역량이 음악교육을 통해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성취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기존의 STEM 교육에 예술(Arts)을 넣어 초·중등학교 급에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학습 내용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구조화하여 과목 간 연계를 강조하고 예술적 기법을 접목한 통합 프로그램이다(방성혜, 2012).

또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융합형 인간이라고 강조하는데, 음악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중심으로 다른 예술 분야 및 서로 다른 학문의 타 교과를 연계하여 융합적으로 교육할 때 음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시각을 확장해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박제연, 2017).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음악과의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교과 및 학문의 지식과 방법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목적은 융합체로서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음악성 및 창의성을 기르는 형태이다.

융합교과의 중요성은 수능시험에서도 나타나는데, 음악 교과의 내용인 고전 시

대 작곡가 베토벤의 ‘합창교향곡’과 국어 교과서의 독서 이론 내용을 융합하거나, 일본의 에도 막부와 음악교과 내용 중 ‘세계의 민속음악’과 관련된 문제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 2023). 이처럼 교육현장에서는 융합교육이 반영되고, 교육과정 수행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도 융합교육은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이해가 부족하여 음악중심 융합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목적, 핵심 전략,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조대현, 2013; 김경화 외, 2015).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 음악 교과가 미술과 융합되는 것처럼 일부 교과에서만 활성화되는 점은 더 많은 이론적 연구와 현장의 실제적 경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은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 및 배경 연구의 부재,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족과 효율적인 정책의 부재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조대현, 2017).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학교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운영 실태와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음악교사들의 인식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사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음악교과에 적용하는 다양한 운영과 실제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의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실태 및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 셋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 넷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다섯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 있는 음악교사의 음악 교과 중심의 융합교육의 실태와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의 음악교사 중심의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재 52개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5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음악교사의 인구통계학적 개인차, 지역적 특성 및 환경 등을 고려해볼 때 연구의 결과를 음악교사의 일반화된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관련성 있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한 것이므로 타당성과 신뢰도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다.

4. 용어의 정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융합교육’,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융합교육

현대 사회에서 융합에 대한 정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융합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본 연구에서의 ‘융합’은 학교 교육에서 각 교과 영역의 경계를 고수하지 않고 문제나 쟁점, 사고기능, 개념, 범주 등을 중심으로 교과 간의 학습 내용을 통합적·융합적으로 재조직하여 가르치는 방식을 의미한다(최석민 외, 2014).

본 연구에서의 ‘융합교육’은 통합교육의 한 형태로 실생활에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나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주제, 문제, 학습자 흥미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학문과 교과 간 내용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나. 음악중심 융합교육

‘음악 중심 융합교육’은 음악적 지식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학습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타 교과의 지식과 개념들을 음악 교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남지영, 2013).

본 연구에서의 음악중심 융합교육이란, 융합체로서의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교과 중심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교과 및 학문의 지식, 방법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종우, 2018).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육과 STEAM 교육

가. STEAM 교육에서 음악교육의 중요성

미래 사회의 인재는 단지 과학 영역에서만 융합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융합인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예술을 포함한 인문 사회적 감성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전인교육 차원에서의 창의적 융합인재를 목표로 한다(조대현, 2013). 예술교육은 학습자의 미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표현력을 함양하여 창의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김은진, 임병노, 2012). 이는 미래 사회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있어 예술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STEAM 교육에서 예술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남지영, 2013).

과학자와 예술가는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 관찰, 상상, 추상, 패턴 인식, 패턴 형성, 비유, 공감, 신체적 사고, 모델링, 시연, 변형, 종합 등의 생각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창의적 융합인재는 과학기술과 예술 역량의 상호촉진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의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은희, 2014).

첫째, 과학과 미술의 융합으로 과학은 미술적 상상력과 시각화 원리를, 미술은 과학적 발견과 원리를 상호 차용한다. 둘째, 과학과 음악의 융합으로 과학자는 음악적 감성과 상상력을, 음악가는 과학적 발견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작품 소재화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기술(공학)과 미술의 융합으로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가능성을 추구하며 비디오, 영상과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특징이 있다. 넷째, 기술(공학)과 음악의 융합으로 현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악기의 제작, 즉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신시사이저와 컴퓨터 음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전자악기를 제작하거나 미디(MIDI) 디지털 포맷이나 컴퓨터 음악 저작 프로그램(시퀀서) 등의 개발을 통해 음원의 DB화와 복사 및 변형을 통한 작곡이 가능해 짐으로써 음악 분야에 새로

운 장을 열게 되었다(김왕동, 2012).

음악과 예술은 학습방식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모두 동원하게 되며, 이는 대뇌 전체의 발달에 도움이 되어 학생들은 정보를 보유하며 학습 내용을 다른 과목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음악과 예술교육의 학습방식이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융합하며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창의적 인재 양성에 효과적이다(정은희, 2014). 따라서 음악 교과를 동반한 STEAM 교육은 학습자의 감성 및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정보를 융합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은희, 2014).

나.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적용 필요성

음악중심 융합교육이란, 음악 교과가 중심이 되는 융합교육을 말하며, 음악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융합체로서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교과 중심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교과 및 학문의 지식, 방법을 융합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종우, 2018).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음악 요소와 개념, 활동이 가지고 있는 융합적 특징과 음악과 연관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융합적 특징을 함께 고려하고,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음악적 환경에서 자기 경험을 토대로 다양하고 통합적인 음악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실제 생활과 연관된 음악 활동이나 문제를 주제로 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교과나 학문의 지식, 방법을 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음악성 및 창의성과 함께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일반 음악교육과 비교해서 음악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과 깊이 있는 지식을 섭렵할 수 있게 해주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하게 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이야말로 수많은 지식이 다양하게 융합되는 새로운 창의 융합 시대에 적합한 음악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서종우, 2018).

음악교육에서 융합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 학문과 연계한 음악 활동은 음악의 핵심 요소를 심화해 학습할 수 있고, 융합교육은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각 교과의 공통적인 핵심 개념을 도출하여 이를 융합하는 방식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음악의

핵심 개념과 같은 타 학문의 핵심 개념을 연계하여, 음악에서 사용되는 용어 또는 원리를 다른 학문에서 적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김지영, 2017). 또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음악을 타 교과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악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둘째,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음악교과는 음악교과의 본질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이러한 음악을 삶 속에서 활용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교육부, 2015). 융합교육을 통해 음악을 학습하게 되면 현대 사회에서 쓰이는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실제적인 과제로 접하면서, 음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고찰시킬 수 있다. 셋째,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른 교과와의 연계는 음악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고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음악중심의 융합학습은 음악적 개념과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학문에서 음악적 요소와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하게 된다. 즉, 같은 개념을 학습하더라도 표현 방법과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음악적 개념 및 활동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 2015).

2.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STEAM 교육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연구, 음악중심 융합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가. STEAM 교육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성원 외(2012)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이론적 모형의 제안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음악과 타 교과 간 통합교육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STEAM)

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박형주(2012)는 통합교육에 근거한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STEAM 교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STEAM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개발이나 모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선행 연구로 수학 교과서 내의 통합교육을 비교·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타 교과와의 연계를 시도할 수 있는지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김상숙(2013)은 서울, 경인, 강원도에 근무하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융합교육 경험 교사와 미 경험 교사로 나누어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필요성, 목적, 방법, 어려움, 효과, 현장 정착 등에 대해 설문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는 융합교육을 경험한 교사가 경험 없는 교사보다 관심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성은 융합교육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억지스러운 융합으로는 융합교육이 성공할 수 없기에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교육목표가 정립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계영(2014)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인식, 필요성, 수업 적용 정도, 연수 요구,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설문 분석한 결과 이전의 연구들에서보다 높은 인식 수준과 연수 경험, 수업 경험이 나타났으며, 적절하고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융합교육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연구의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초등교육의 융합수업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중등교육의 융합수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나.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연구

조대현(2013)은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자연스러운 음악적 환경에서 형성된 직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타 영역으로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융합의 과정을 기대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음악적 환경 안에서 형성된 학습자의 긍정적인 음악적 기본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중모(2013)는 음악중심의 융합교육은 음악 교과의 본래의 목표를 유지하면

서 융합교육의 의미를 확장 시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음악중심의 융합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체와 융합이 주요 활동이며, 융합교육의 대상이 융합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요소로 해체하고, 그 요소의 개체와 관계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해체한다는 것은 음악을 요소로 나누는 것과 음악적인 요소 이외에 음악과 관련된 맥락적 지식을 살피는 것이 있으며, 해체의 과정에서 사회, 국어, 과학 등 다양한 지식과 관련지어 음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남지영(2013)은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음악중심 융합인재교육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음악의 기능 중의 하나인 ‘인간의 정서 회복과 치유’ 등을 통해 현대 사회의 교육적 위기를 해결 방법의 가능성을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중우(2018)는 양적 연구를 통해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성의 인지적·정의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융합 활동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내용에 따른 차시별 관찰 기록을 통해 학생들에게 나타난 창의성 관련 행위의 특징을 인지적·정의적 요소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임새롬(2020)은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전체의 2/3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나 평가, 측정에 관한 연구는 없었고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는 문헌 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 음악중심 융합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박정아(2014)는 음악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지만, 프로그램과 지도 자료의 부족, 교사 교육의 부재 등의 이는 활발히 운영되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음악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교육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더 다양한 과목과 영역에서 접근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며, 개발된 지도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애진(2016)은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융합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실태 분석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다양한 사례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음악중심 융합교육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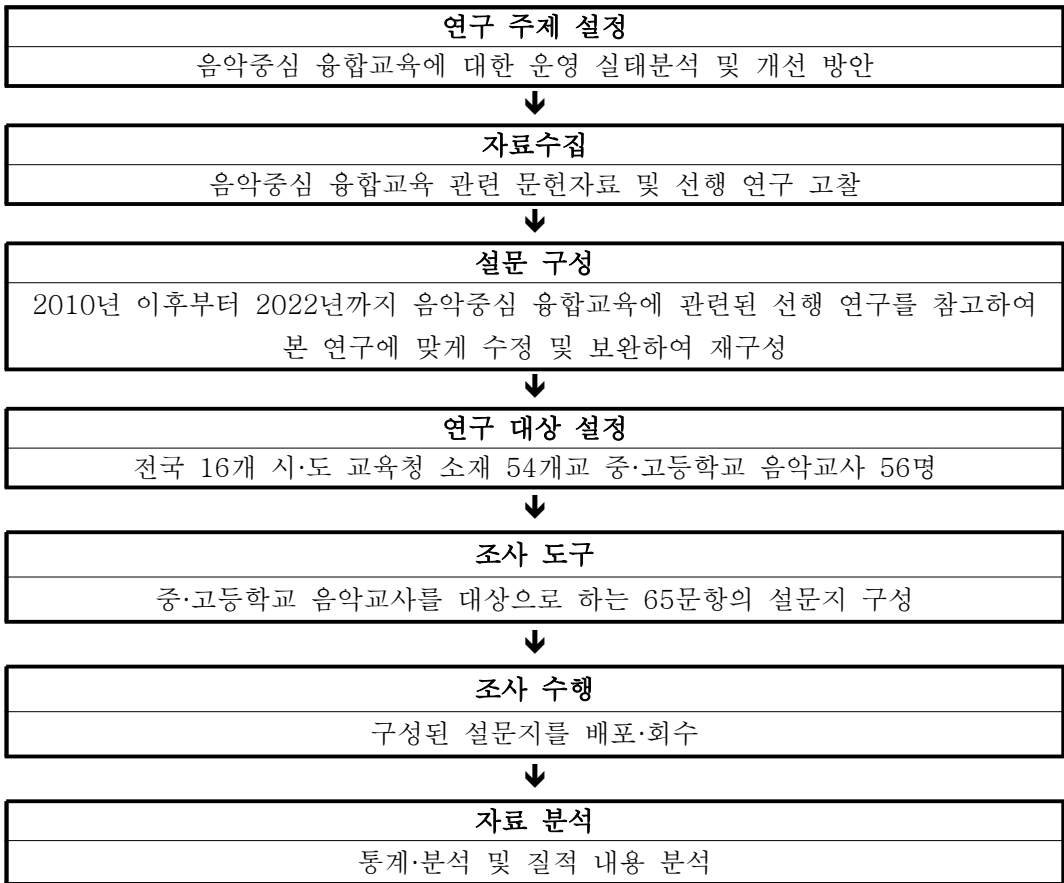
김민주(2022)는 음악교과 기반 융합 수업방안 연구로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창의성 및 융합 교육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실수업의 확대를 통해 음악 교과가 새로운 교육의 변화 흐름에 선발 주자로서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장의 음악교사를 중심으로 한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실제 사례와 같은 현황에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조사연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관한 주요 이슈와 관련 근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설문지의 검증을 거쳐 최종 구성하였고, 이를 배포 및 회수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재의 54개교 중등 음악교사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화, 문자, SNS, 전자우편 등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 후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응답 내용 1차 분석 후 무성의한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56부 전체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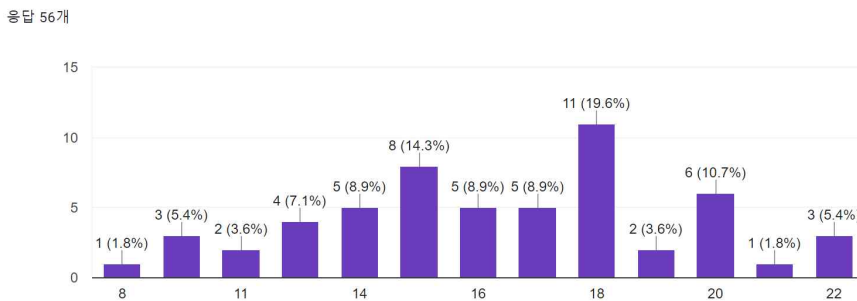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은 ‘남교사’ 7명(12.5%), ‘여교사’ 49명(87.5%)으로, 연령대는 ‘20대’ 8명(14.3%), ‘30대’ 39명(69.6%), ‘40대’ 6명(10.7%), ‘50대 이상’ 3명(5.4%)으로, 학교급은 ‘중학교’ 39개교(69.6%), ‘고등학교’ 17개교(30.4%)였으며, 교육경력은 ‘5년 미만’ 23명(41.1%), ‘5-10년’ 24명(42.9%), ‘11-15년’ 4명(7.1%), ‘16-20년’ 2명(3.6%), ‘20년 이상’ 3명(5.4%)으로 조사되었고, 융합교육 운영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 32명(57.1%), ‘없다’ 24명(42.9%)으로,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 29명(51.8%), ‘없다’ 27명(48.2%)으로 조사되었으며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 33명(58.9%), ‘보통’ 21명(37.5%), ‘낮음’ 2명(3.6%)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 수(N)	표본 수(N)	%
성별	남교사	7	12.5
	여교사	49	87.5
연령대	20대	8	14.3
	30대	39	69.6
	40대	6	10.7
	50대 이상	3	5.4
학교급	중학교	39	69.6
	고등학교	17	30.4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1.1
	5-10년	24	42.9
	11-15년	4	7.1
	16-20년	2	3.6
	20년 이상	3	5.4

융합교육 운영경험	있다	32	57.1
	없다	24	42.9
융합교육관련 연수경험	있다	29	51.8
	없다	27	48.2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58.9
	보통	21	37.5
	낮음	2	3.6
전체		56	100.0

연구 대상자의 ‘현재 담당하는 음악교과의 주당 시수’는 주 ‘8시수’부터 ‘22시수’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는데 ‘18시수’ 11명(19.6%)이 가장 많았고 ‘8시수’, ‘21시수’ 각 1명(1.8%)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 56명의 ‘평균 시수’는 16.2시수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 대상자의 현재 담당하는 음악교과의 주당 시수

3. 연구 도구

가. 설문 구성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 학문과 교과 간, 교과 내 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학교 교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 대안으로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음악교육에서도 융

합교육은 통합교육과 연계해서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 되었으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융합교육이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다(서중우, 2018).

이에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다섯 가지 영역, 5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역은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인식,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영역인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은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분리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영역을 제외한 네 개의 영역은 공통응답 영역으로 구성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2010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융합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설문지의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 영역은 홍성령(2019)의 예비 음악교사의 융·통합 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 인식조사 문헌을 기초로 제작하였으며,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인식,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 음악 중심 융합 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의 영역은 최성희(2015), 김애진(2016), 백재영(2019)의 연구 설문지 문항을 선별·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설문지의 큰 영역을 구성하고 연구의 설문지 중 연구목적에 맞는 하위 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에서는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제작하였고, 두 번째 영역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인식에서는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실태를 알 수 있는 목적으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은 분리응답 설문 문항으로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설문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였고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의 하위 설문 문항은 현재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 자료의 활용 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의 하위 설문 문항은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기피한 이유, 향후 반드시 운영해야 할 때 우선시 되어야 할 점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 영역인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문제점에서는 음악중심 융합교육 적용의 어려움, 현장에 정

착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할 부분, 융합교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현상의 3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하여 15문항을 제작하였고 다섯 번째 영역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또한 음악중심 융합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의 3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하여 15문항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설문 문항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문항별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 0.8 이상이면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0.7~0.8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단, 2영역 설문 문항은 10문항 중 과반수 이상의 문항이 명목척도이므로 등간척도인 2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했을 때 Cronbach's α 계수가 '0.567'로 나왔으며 이것은 과반수 미만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설문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표

설문문항	문항수	Cronbach's α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	명목척도
I.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	5문항	.764
II.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인식	2문항	.567
	8문항	명목척도
III.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 경험 있음	12문항	명목척도
III.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 경험 없음	12문항	명목척도
IV.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	15문항	.819
V.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15문항	.891
	56	4.43

나. 사전 면담

설문조사 시작 전 연구 대상에게 간단한 사전 면담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밝히고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현직 중등 음악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사전 면담 시 근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 후 학교명은 익명 처리하였고 설문에서는 '학교급'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설문 응답 내용을 틀

에 맞추려 하지 않고 참여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응해줄 것을 약속받았으며 응답하기 곤란한 문항 또는 객관식 설문 문항에 적절한 선택지가 없을 때는 기타 항목에 참여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입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 수(N)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설문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적절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문항의 영역 중 등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 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SPSS(ver. 29)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은 연구 대상자의 7개 항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과 다섯 가지의 설문 영역 문항별 교차 분석을 실시하고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단, 세 번째 설문 영역은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교사를 분리하여 응답한 영역이므로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 변인을 제외한 6개 항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으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없는 교사에는 '여교사'만 응답했으므로 해당 영역은 응답자의 '성별' 변인을 제외한 5개 항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으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중등 음악교사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백분율(%) 결과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었고 표준편차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었으며 이 외의 결과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내었다.

IV. 연구 분석 및 결과

1.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인식

1)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문항의 평균값은 4.39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교사(4.67)가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음악중심 융합교육 인식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9	0.61		
성별	남교사	7	4.43	0.53	t=0.084	p=.933
	여교사	49	4.41	0.61		
연령대	20대	8	4.38	0.74	F=0.442	p=.724
	30대	39	4.46	0.55		
	40대	6	4.17	0.41		
	50대 이상	3	4.33	1.15		
학교급	중학교	39	4.36	0.54	t=-0.983	p=.330
	고등학교	17	4.53	0.72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48	0.59	0.734	p=.573
	5-10년	24	4.33	0.56		
	11-15년	4	4.75	0.50		
	16-20년	2	4.00	0.00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53	0.57	t=1.781	p=.081
	없다	24	4.25	0.61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52	0.57	t=1.398	p=.168
	없다	27	4.30	0.61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67	0.48	F=10.958***	p<.001
	보통	21	4.00	0.55		
	낮음	2	4.50	0.71		

*** $p < .001$

2)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예술 및 인문사회 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올바른 세계관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문항의 평균값은 4.32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전인교육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2	0.64		
성별	남교사	7	4.29	0.76	t=-0.311	p=.757
	여교사	49	4.37	0.64		
연령대	20대	8	4.25	0.71	F=0.458	p=.713
	30대	39	4.41	0.64		
	40대	6	4.33	0.52		
	50대 이상	3	4.00	1.00		
학교급	중학교	39	4.31	0.66	t=-0.867	p=.390
	고등학교	17	4.47	0.62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30	0.70	F=0.835	p=.510
	5-10년	24	4.42	0.58		
	11-15년	4	4.75	0.50		
	16-20년	2	4.00	0.00		
	20년 이상	3	4.00	1.00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47	0.67	t=1.513	p=.136
	없다	24	4.21	0.59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45	0.69	t=1.098	p=.277
	없다	27	4.26	0.59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48	0.67	F=1.919	p=.157
	보통	21	4.14	0.57		
	낮음	2	4.50	0.71		

3) ‘예술, 과학, 인문학적 상상이 결합된 학습방식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계발한다’ 문항의 평균값은 4.63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융합교육 운영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4.78)가 예술, 과학, 인문학적 상상이 결합된 학습방식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계발한다는 인식이 가

장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예술융합의 학습방식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63	0.52		
성별	남교사	7	4.71	0.49	t=0.478	p=.634
	여교사	49	4.61	0.53		
연령대	20대	8	4.50	0.53	F=0.174	p=.913
	30대	39	4.64	0.54		
	40대	6	4.67	0.52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62	0.49	t=-0.206	p=.838
	고등학교	17	4.65	0.61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48	0.59	F=1.160	p=.340
	5-10년	24	4.71	0.46		
	11-15년	4	5.00	0.00		
	16-20년	2	4.50	0.71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78	0.42	t=2.597*	p=.013
	없다	24	4.42	0.58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76	0.44	t=2.011	p=.050
	없다	27	4.48	0.58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73	0.52	F=1.561	p=.219
	보통	21	4.48	0.51		
	낮음	2	4.50	0.71		

* $p < .05$

4) ‘현상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문항의 평균값은 4.56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교사가 현상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현상에 대한 융합적 사고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56	0.53		
성별	남교사	7	4.57	0.53	t=0.249	p=.804
	여교사	49	4.51	0.62		
연령대	20대	8	4.25	0.46	F=0.653	p=.585
	30대	39	4.56	0.64		
	40대	6	4.50	0.55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46	0.64	t=-1.060	p=.294
	고등학교	17	4.65	0.49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35	0.57	1.529	p=.208
	5-10년	24	4.54	0.66		
	11-15년	4	5.00	0.00		
	16-20년	2	5.00	0.00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56	0.62	t=0.637	p=.527
	없다	24	4.46	0.59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66	0.55	t=1.803	p=.077
	없다	27	4.37	0.63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73	0.45	F=6.019**	p=.004
	보통	21	4.19	0.68		
	낮음	2	4.50	0.71		

** $p < .01$

5) ‘융합교육에서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여러 자원을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항의 평균값은 4.30이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융합교육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 방안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0	0.70		
성별	남교사	7	4.43	0.79	t=0.420	p=.676
	여교사	49	4.31	0.71		
연령대	20대	8	4.25	0.71	F=0.343	p=.794

	30대	39	4.33	0.70		
	40대	6	4.50	0.84		
	50대 이상	3	4.00	1.00		
학교급	중학교	39	4.31	0.73	t=-0.215	p=.830
	고등학교	17	4.35	0.70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13	0.76	F=2.275	p=.074
	5-10년	24	4.58	0.58		
	11-15년	4	4.50	0.58		
	16-20년	2	3.50	0.71		
	20년 이상	3	4.00	1.00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44	0.72	t=1.413	p=.163
	없다	24	4.17	0.7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41	0.68	t=1.000	p=.322
	없다	27	4.22	0.75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42	0.71	F=2.401	p=.100
	보통	21	4.10	0.70		
	낮음	2	5.00	0.00		

2.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실태

융합교육에서는 그 학습에 대한 필요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에서도 그 인식을 알기 위해 중등학교 음악교사들의 인식과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운영 여부, 타 교과 융합과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차별성과 개선점 등을 살펴보았다.

1) 학생들의 인성에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주는 긍정적 영향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학생들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의 평균값은 4.23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융합교육 운영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4.47)가 학생들의 인성에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에서도 유의한 차이($p < .01$)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4.55)가 학생들의 인성에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인성적 영향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23	0.82		
성별	남교사	7	4.71	0.49	t=1.699	p=.095
	여교사	49	4.14	0.87		
연령대	20대	8	3.63	1.06	F=1.555	p=.211
	30대	39	4.31	0.77		
	40대	6	4.33	1.03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23	0.90	t=0.219	p=.828
	고등학교	17	4.18	0.73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00	0.91	F=1.361	p=.260
	5-10년	24	4.29	0.81		
	11-15년	4	5.00	0.00		
	16-20년	2	4.00	1.41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47	0.67	t=2.618*	p=.012
	없다	24	3.88	0.95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55	0.63	t=3.327**	p=.002
	없다	27	3.85	0.91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30	0.81	F=0.444	p=.644
	보통	21	4.10	0.89		
	낮음	2	4.00	1.41		

* $p < .05$, ** $p < .01$

2) 중·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여부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의 평균값은 4.12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융합교육 운영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4.34)가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중·고등학교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12	0.73		
성별	남교사	7	4.43	0.787	t=1.046	p=.300
	여교사	49	4.10	0.770		
연령대	20대	8	4.00	0.756	F=0.601	p=.617
	30대	39	4.23	0.742		
	40대	6	3.83	0.983		
	50대 이상	3	4.00	1.000		
학교급	중학교	39	4.15	0.779	t=0.160	p=.874
	고등학교	17	4.12	0.781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17	0.650	F=1.385	p=.252
	5-10년	24	4.17	0.816		
	11-15년	4	4.50	1.000		
	16-20년	2	3.00	0.000		
	20년 이상	3	4.00	1.000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34	0.701	t=2.335*	p=.023
	없다	24	3.88	0.797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28	0.702	t=1.344	p=.184
	없다	27	4.00	0.832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24	0.708	F=2.650	p=.080
	보통	21	3.90	0.831		
	낮음	2	5.00	0.000		

* $p < .05$

3) 타 교과 융합교육과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차별점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다른 교과 중심의 융합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교수-학습방법’ 32명(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가 결과의 환원’ 9명(16.1%), ‘수업 목표’ 8명(14.3%), ‘수업 내용’ 6명(10.7%)으로 나타났다. ‘기타’ 1명(1.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악기 연주, 노래 등으로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있었으며, 카이제곱검정 결과 성별($p < .05$)과 연령($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0>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다른 교과 중심의 차이

구분	전체	표본 수	수업목표	수업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결과 의 환원	기타	유의차 검증
		56	N(%)	N(%)	N(%)	N(%)	N(%)	
		8(14.3)	6(10.7)	32(57.1)	9(16.1)	1(1.8)		
성별	남 교사	7	0(0.0)	0(0.0)	4(57.1)	2(28.6)	1(14.3)	$x^2=9.778^*$ $p=.044$
	여 교사	49	8(16.3)	6(12.2)	28(57.1)	7(14.3)	0(0.0)	
연령	20대	8	2(25.0)	0(0.0)	5(62.5)	1(12.5)	0(0.0)	$x^2=22.981^*$ $p=.028$
	30대	39	6(15.4)	5(12.8)	22(56.4)	6(15.4)	0(0.0)	
	40대	6	0(0.0)	1(16.7)	3(50.0)	2(33.3)	0(0.0)	
	50대 이상	3	0(0.0)	0(0.0)	2(66.7)	0(0.0)	1(33.3)	
학교급	중 학교	39	5(12.8)	3(7.7)	21(53.8)	9(23.1)	1(2.6)	$x^2=5.891$ $p=.207$
	고등 학교	17	3(17.6)	3(17.6)	11(64.7)	0(0.0)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	3(13.0)	3(13.0)	14(60.9)	3(13.0)	0(0.0)	$x^2=23.828$ $p=.093$
	5-10년	24	5(20.8)	3(12.5)	11(45.8)	5(20.8)	0(0.0)	
	11-15년	4	0(0.0)	0(0.0)	3(75.0)	1(25.0)	0(0.0)	
	16-20년	2	0(0.0)	0(0.0)	2(100.0)	0(0.0)	0(0.0)	
	20년 이상	3	0(0.0)	0(0.0)	2(66.7)	0(0.0)	1(33.3)	
융합 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5(15.6)	1(3.1)	18(56.3)	7(21.9)	1(3.1)	$x^2=6.433$ $p=.169$
	없다	24	3(12.5)	5(20.8)	14(58.3)	2(8.3)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13.8)	1(3.4)	16(55.2)	7(24.1)	1(3.4)	$x^2=6.381$ $p=.172$
	없다	27	4(14.8)	5(18.5)	16(59.3)	2(7.4)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6(18.2)	3(9.1)	20(60.6)	3(9.1)	1(3.0)	$x^2=6.621$ $p=.578$
	보통	21	2(9.5)	3(14.3)	10(47.6)	6(28.6)	0(0.0)	
	낮음	2	0(0.0)	0(0.0)	2(100.0)	0(0.0)	0(0.0)	

* $p < .05$

4)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적절한 수업 횟수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업 횟수는 한 학기에 몇회

(차시)인가'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4-7차시' 30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11차시' 14명(25%), '12차시 이상' 6명(10.7%), '4차시 미만' 5명(8.9%), '기타' 1명(1.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수업 계획에 따라 다르고 실기 수업이 활용될 경우 한 학기 전체를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계획하는 것도 좋았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p < .001$)과 교육경력($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1>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 횟수

구분	전체	표본 수	4차시 미만	4-7차시	8-11차시	12차시 이상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56	5(8.9)	30(53.6)	14(25)	6(10.7)	1(1.8)	
성별	남 교사	7	0(0.0)	3(42.9)	2(28.6)	1(14.3)	1(14.3)	$x^2=8.022$ $p=.091$
	여 교사	49	5(10.2)	27(55.1)	12(24.5)	5(10.2)	0(0.0)	
연령	20대	8	1(12.5)	6(75.0)	1(12.5)	0(0.0)	0(0.0)	$x^2=34.062^{***}$ $p=.001$
	30대	39	4(10.3)	23(59.0)	7(17.9)	5(12.8)	0(0.0)	
	40대	6	0(0.0)	0(0.0)	5(83.3)	1(16.7)	0(0.0)	
	50대 이상	3	0(0.0)	1(33.3)	1(33.3)	0(0.0)	1(33.3)	
학교급	중 학교	39	3(7.7)	21(53.8)	8(20.5)	6(15.4)	1(2.6)	$x^2=4.308$ $p=.366$
	고등 학교	17	2(11.8)	9(52.9)	6(35.3)	0(0.0)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	2(8.7)	15(65.2)	5(21.7)	1(4.3)	0(0.0)	$x^2=28.573^*$ $p=.027$
	5-10년	24	3(12.5)	12(50.0)	5(20.8)	4(16.7)	0(0.0)	
	11-15년	4	0(0.0)	2(50.0)	1(25.0)	1(25.0)	0(0.0)	
	16-20년	2	0(0.0)	0(0.0)	2(100.0)	0(0.0)	0(0.0)	
	20년 이상	3	0(0.0)	1(33.3)	1(33.3)	0(0.0)	1(33.3)	
융합 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9.4)	16(50.0)	7(21.9)	5(15.6)	1(3.1)	$x^2=2.971$ $p=.572$
	없다	24	2(8.3)	14(58.3)	7(29.2)	1(4.2)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2(6.9)	15(51.7)	7(24.1)	4(13.8)	1(3.4)	$x^2=1.798$ $p=.773$
	없다	27	3(11.1)	15(55.6)	7(25.9)	2(7.4)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12.1)	17(51.5)	7(21.2)	4(12.1)	1(3.0)	$x^2=4.073$ $p=.851$
	보통	21	1(4.8)	11(52.4)	7(33.3)	2(9.5)	0(0.0)	
	낮음	2	0(0.0)	2(100.0)	0(0.0)	0(0.0)	0(0.0)	

* $p < .05$, *** $p < .001$

5) 음악중심 융합교육 도입의 우리나라 교육 개선점

‘음악중심 융합교육 도입이 우리나라 교육의 어떠한 점을 개선해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창의 인재 양성 실현’ 32명(5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의 실현’ 22명(39.3%),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상승’ 1명(1.8%), ‘기타’ 1명(1.8%)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응답은 0명(0%)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예술교과에 대한 인식 개선(예를 들면 음악이 교양 교과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p < .05$)과 연령($p < .05$) 및 교육경력($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2>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개선 요소

구분	전체	표본 수	공교육 신뢰도 상승	사교육비 절감	창의 인재 양성	학생 다양성 인정 교육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56	1(1.8)	0(0.0)	32(57.1)	22(39.3)	1(1.8)	
성별	남 교사	7	0(0.0)	0(0.0)	2(28.6)	4(57.1)	1(14.3)	$x^2=8.935^*$ $p=.030$
	여 교사	49	1(2.0)	0(0.0)	30(61.2)	18(36.7)	0(0.0)	
연령	20대	8	0(0.0)	0(0.0)	7(87.5)	1(12.5)	0(0.0)	$x^2=21.665^*$ $p=.010$
	30대	39	1(2.6)	0(0.0)	21(53.8)	17(43.6)	0(0.0)	
	40대	6	0(0.0)	0(0.0)	3(50.0)	3(50.0)	0(0.0)	
	50대 이상	3	0(0.0)	0(0.0)	1(33.3)	1(33.3)	1(33.3)	
학교급	중 학교	39	0(0.0)	0(0.0)	22(56.4)	16(41.0)	1(2.6)	$x^2=2.841$ $p=.417$

	고등학교	17	1(5.9)	0(0.0)	10(58.8)	6(35.3)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	0(0.0)	0(0.0)	15(65.2)	8(34.8)	0(0.0)	$x^2=25.084^*$ $p=.014$
	5- 10년	24	1(4.2)	0(0.0)	15(62.5)	8(33.3)	0(0.0)	
	11- 15년	4	0(0.0)	0(0.0)	1(25.0)	3(75.0)	0(0.0)	
	16- 20년	2	0(0.0)	0(0.0)	0(0.0)	2(100.0)	0(0.0)	
	20년 이상	3	0(0.0)	0(0.0)	1(33.3)	1(33.3)	1(33.3)	
융합 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1(3.1)	0(0.0)	16(50.0)	14(43.8)	1(3.1)	$x^2=2.545$ $p=.467$
	없다	24	0(0.0)	0(0.0)	16(66.7)	8(33.3)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1(3.4)	0(0.0)	12(41.4)	15(51.7)	1(3.4)	$x^2=1.798$ $p=.773$
	없다	27	0(0.0)	0(0.0)	20(74.1)	7(25.9)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0(0.0)	0(0.0)	17(51.5)	15(45.5)	1(3.0)	$x^2=3.889$ $p=.692$
	보통	21	1(4.8)	0(0.0)	14(66.7)	6(28.6)	0(0.0)	
	낮음	2	0(0.0)	0(0.0)	1(50.0)	1(50.0)	0(0.0)	

* $p < .05$

6)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지속하는 데 어려운 점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지속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빈도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타 교과와 연계의 어려움’ 21명(37.5%)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과정 및 수업 시수 확보의 어려움’ 12명(21.4%),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및 /또는 학생들의 수업준비도 부족’ 12명(21.4%), ‘기타’ 2명(3.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융합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학생들의 선수지식의 결여, 교육과정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의 부족’, ‘다른 교과와 연계했을 때 교실(음악실 외), 특별실 사용 이동 수업 등 학교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의 응답이 있었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경험,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어려운 점

구분	전체	표본 수	교재연구	교육과정	타교과	지원 및	기타	유의차 검증	
			수업준비	수업시수	연계	학생의 수업			
			부담	확보 어려움	어려움	준비 부족			
		N(%)	N(%)	N(%)	N(%)	N(%)			
		56	9(16.1)	12(21.4)	21(37.5)	12(21.4)	2(3.6)		
성별	남 교사	7	1(14.3)	1(14.3)	3(42.9)	1(14.3)	1(14.3)	$x^2=3.029$ $p=.553$	
	여 교사	49	8(16.3)	11(22.4)	18(36.7)	11(22.4)	1(2.0)		
연령	20대	8	0(0.0)	1(12.5)	3(37.5)	4(50.0)	0(0.0)	$x^2=2.664$ $p=.976$	
	30대	39	2(5.1)	7(17.9)	16(41.0)	14(35.9)	0(0.0)		
	40대	6	0(0.0)	1(16.7)	3(50.0)	2(33.3)	0(0.0)		
	50대 이상	3	0(0.0)	0(0.0)	1(33.3)	2(66.7)	0(0.0)		
학교급	중 학교	39	8(20.5)	8(20.5)	11(28.2)	10(25.6)	2(5.1)	$x^2=6.523$ $p=.163$	
	고등 학교	17	1(5.9)	4(23.5)	10(58.8)	2(11.8)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	6(26.1)	5(21.7)	4(17.4)	7(30.4)	1(4.3)	$x^2=24.308$ $p=.083$	
	5-10년	24	1(4.2)	5(20.8)	13(54.2)	5(20.8)	0(0.0)		
	11-15년	4	1(25.0)	1(25.0)	2(50.0)	0(0.0)	0(0.0)		
	16-20년	2	1(50.0)	1(50.0)	0(0.0)	0(0.0)	0(0.0)		
	20년 이상	3	0(0.0)	0(0.0)	2(66.7)	0(0.0)	1(33.3)		
융합 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9.4)	7(21.9)	13(40.6)	8(25.0)	1(3.1)	$x^2=2.771$ $p=.597$	
	없다	24	6(25.0)	5(20.8)	8(33.3)	4(16.7)	1(4.2)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13.8)	7(24.1)	11(37.9)	5(17.2)	2(6.9)	$x^2=2.757$ $p=.599$	
	없다	27	5(18.5)	5(18.5)	10(37.0)	7(25.9)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5(15.2)	6(18.2)	12(36.4)	8(24.2)	2(6.1)	$x^2=5.393$ $p=.715$	
	보통	21	3(14.3)	5(23.8)	9(42.9)	4(19.0)	0(0.0)		
	낮음	2	1(50.0)	1(50.0)	0(0.0)	0(0.0)	0(0.0)		

7)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을 위한 교사의 필요 역량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필요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

하여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학습 내용에 알맞게 교과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23명(41.1%),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 능력 및/또는 융합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 22명(39.3%), ‘음악교과와 타 교과에 대한 지식’ 9명(16.1%), ‘융합교육 철학에 대한 이해’ 2명(3.6%)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경험,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필요한 교사 역량

구분	전체	표본 수	융합교육 철학이해	타 교과에 대한 지식	교과 통합 능력	교수법활용 의지/열정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56	2(3.6)	9(16.1)	23(41.1)	22(39.3)	0(0.0)	
성별	남 교사	7	0(0.0)	1(14.3)	2(28.6)	4(57.1)	0(0.0)	$x^2=1.255$ $p=.740$
	여 교사	49	2(4.1)	8(16.3)	21(42.9)	18(36.7)	0(0.0)	
연령	20대	8	0(0.0)	1(12.5)	3(37.5)	4(50.0)	0(0.0)	$x^2=2.664$ $p=.976$
	30대	39	2(5.1)	7(17.9)	16(41.0)	14(35.9)	0(0.0)	
	40대	6	0(0.0)	1(16.7)	3(50.0)	2(33.3)	0(0.0)	
	50대 이상	3	0(0.0)	0(0.0)	1(33.3)	2(66.7)	0(0.0)	
학교급	중 학교	39	2(5.1)	4(10.3)	15(38.5)	18(46.2)	0(0.0)	$x^2=5.330$ $p=.149$
	고등 학교	17	0(0.0)	5(29.4)	8(47.1)	4(23.5)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	1(4.3)	7(30.4)	7(30.4)	8(34.8)	0(0.0)	$x^2=16.063$ $p=.188$
	5-10년	24	0(0.0)	2(8.3)	11(45.8)	11(45.8)	0(0.0)	
	11-15년	4	1(25.0)	0(0.0)	3(75.0)	0(0.0)	0(0.0)	
	16-20년	2	0(0.0)	0(0.0)	1(50.0)	1(50.0)	0(0.0)	
	20년 이상	3	0(0.0)	0(0.0)	1(33.3)	2(66.7)	0(0.0)	
융합 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1(3.1)	5(15.6)	14(43.8)	12(37.5)	0(0.0)	$x^2=0.242$ $p=.971$
	없다	24	1(4.2)	4(16.7)	9(37.5)	10(41.7)	0(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1(3.4)	3(10.3)	12(41.4)	13(44.8)	0(0.0)	$x^2=1.701$ $p=.637$
	없다	27	1(3.7)	6(22.2)	11(40.7)	9(33.3)	0(0.0)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1(3.0)	7(21.2)	12(36.4)	13(39.4)	0(0.0)	$x^2=5.326$ $p=.503$
	보통	21	1(4.8)	2(9.5)	11(52.4)	7(33.3)	0(0.0)	
	낮음	2	0(0.0)	0(0.0)	0(0.0)	2(100.0)	0(0.0)	

8) 융합교육 관련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의 지원

‘융합교육과 관련한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의 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 ‘수업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8명(50%)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업 준비를 위한 교사의 업무 경감’ 13명(23.2%), ‘융합교육(수업)을 위한 교사의 재량권 확보’ 8명(14.3%), ‘융합교육에 대한 연수 실시’ 6명(10.7%), ‘기타’ 1명(1.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관리자의 개방적인 사고’가 있었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p < .01$), 연령($p < .05$), 교육경력($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5> 융합교육과 관련한 지원

구분	전체	표본 수	관련 연수 실시 N(%)	활용 가능 프로그램 개발 N(%)	교사 업무 경감 N(%)	교사 재량권 확보 N(%)	기타 N(%)	유의차 검증
		56	6(10.7)	28(50.0)	13(23.2)	8(14.3)	1(1.8)	
성별	남 교사	7	1(14.3)	0(0.0)	3(42.9)	2(28.6)	1(14.3)	$x^2=13.568^{**}$ $p=.009$
	여 교사	49	5(10.2)	28(57.1)	10(20.4)	6(12.2)	0(0.0)	
연령	20대	8	0(0.0)	5(62.5)	2(25.0)	1(12.5)	0(0.0)	$x^2=25.139^*$ $p=.014$
	30대	39	4(10.3)	19(48.7)	11(28.2)	5(12.8)	0(0.0)	
	40대	6	1(16.7)	3(50.0)	0(0.0)	2(33.3)	0(0.0)	
	50대 이상	3	1(33.3)	1(33.3)	0(0.0)	0(0.0)	1(33.3)	
학교급	중 학교	39	2(5.1)	20(51.3)	10(25.6)	6(15.4)	1(2.6)	$x^2=4.654$ $p=.325$
	고등 학교	17	4(23.5)	8(47.1)	3(17.6)	2(11.8)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	2(8.7)	13(56.5)	6(26.1)	2(8.7)	0(0.0)	$x^2=27.512^*$ $p=.036$
	5- 10년	24	3(12.5)	9(37.5)	6(25.0)	6(25.0)	0(0.0)	
	11- 15년	4	0(0.0)	3(75.0)	1(25.0)	0(0.0)	0(0.0)	
	16- 20년	2	0(0.0)	2(100.0)	0(0.0)	0(0.0)	0(0.0)	
	20년 이상	3	1(33.3)	1(33.3)	0(0.0)	0(0.0)	1(33.3)	
융합 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2(6.3)	13(40.6)	9(28.1)	7(21.9)	1(3.1)	$x^2=7.237$ $p=.124$
	없다	24	4(16.7)	15(62.5)	4(16.7)	1(4.2)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2(6.9)	13(44.8)	8(27.6)	5(17.2)	1(3.4)	$x^2=2.934$ $p=.569$
	없다	27	4(14.8)	15(55.6)	5(18.5)	3(11.1)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12.1)	14(42.4)	7(21.2)	7(21.2)	1(3.0)	$x^2=5.380$ $p=.716$
	보통	21	2(9.5)	13(61.9)	5(23.8)	1(4.8)	0(0.0)	
	낮음	2	0(0.0)	1(50.0)	1(50.0)	0(0.0)	0(0.0)	

* $p < .05$, ** $p < .01$

9)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인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사들의 생각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암기, 입시 중심의 사고에서 창의, 인재 양성의 사고로 전환’ 30명(53.6%),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참여 의지’ 18명(32.1%), ‘융합교육 철학에 대한 이해’ 8명(14.3%)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학생, 학부모의 인식

구분	전체	표 본 수	융합교육 철학이해	교수법에 대한 참여 의지	학습 결과에 대한 기대감	창의인재 양성 사고로 전환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56	8(14.3)	18(32.1)	0(0.0)	30(53.6)	0(0.0)	

성별	남	7	1(14.3)	3(42.9)	0(0.0)	3(42.9)	0(0.0)	$x^2=0.457$ $p=.796$
	교사	49	7(14.3)	15(30.6)	0(0.0)	27(55.1)	0(0.0)	
연령	20대	8	1(12.5)	4(50.0)	0(0.0)	3(37.5)	0(0.0)	$x^2=2.044$ $p=.916$
	30대	39	6(15.4)	11(28.2)	0(0.0)	22(56.4)	0(0.0)	
	40대	6	1(16.7)	2(33.3)	0(0.0)	3(50.0)	0(0.0)	
	50대 이상	3	0(0.0)	1(33.3)	0(0.0)	2(66.7)	0(0.0)	
학교급	중	39	5(12.8)	11(28.2)	0(0.0)	23(59.0)	0(0.0)	$x^2=1.513$ $p=.469$
	고등학교	17	3(17.6)	7(41.2)	0(0.0)	7(41.2)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	3(13.0)	11(47.8)	0(0.0)	9(39.1)	0(0.0)	$x^2=12.134$ $p=.145$
	5-10년	24	4(16.7)	3(12.5)	0(0.0)	17(70.8)	0(0.0)	
	11-15년	4	1(25.0)	1(25.0)	0(0.0)	2(50.0)	0(0.0)	
	16-20년	2	0(0.0)	2(100.0)	0(0.0)	0(0.0)	0(0.0)	
	20년 이상	3	0(0.0)	1(33.3)	0(0.0)	2(66.7)	0(0.0)	
융합 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5(15.6)	9(28.1)	0(0.0)	18(56.3)	0(0.0)	$x^2=0.569$ $p=.752$
	없다	24	3(12.5)	9(37.5)	0(0.0)	12(5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10.3)	8(27.6)	0(0.0)	18(62.1)	0(0.0)	$x^2=1.853$ $p=.396$
	없다	27	5(18.5)	10(37.0)	0(0.0)	12(44.4)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6(18.2)	12(36.4)	0(0.0)	15(45.5)	0(0.0)	$x^2=3.362$ $p=.499$
	보통	21	2(9.5)	6(28.6)	0(0.0)	13(61.9)	0(0.0)	
	낮음	2	0(0.0)	0(0.0)	0(0.0)	2(100.0)	0(0.0)	

10)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참여 유도 방안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융합교육 참여 교사의 교무 업무 경감’ 19명

(33.9%)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내, 국외(해외) 연수 기회 확대’ 17명(30.4%), ‘성과급,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14명(25%), ‘운영 결과 관련 홍보물 배포 확대’ 4명(7.1%), ‘기타’ 2명(3.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교육 사례 및 프로그램 공유’, ‘앞으로 음악교육을 책임질 젊은 음악교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관리자와 함께하는 국내외 연수보다는 본인들이 자유롭게 직접 배우고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돈, 시간, 가산점 등을 골고루 활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램’ 등의 응답이 있었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교육경력($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7>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

구분	전체	표본 수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연수 확대	홍보물 배포 확대	참여 교사의 업무 경감	기타	유의차 검증
		56	N(%)	N(%)	N(%)	N(%)	N(%)	
		14(25)	17(30.4)	4(7.1)	19(33.9)	2(3.6)		
성별	남 교사	7	3(42.9)	1(14.3)	0(0.0)	2(28.6)	1(14.3)	$x^2=4.912$ $p=.296$
	여 교사	49	11(22.4)	16(32.7)	4(8.2)	17(34.7)	1(2.0)	
연령	20대	8	3(37.5)	2(25.0)	0(0.0)	3(37.5)	0(0.0)	$x^2=15.924$ $p=.195$
	30대	39	9(23.1)	12(30.8)	4(10.3)	14(35.9)	0(0.0)	
	40대	6	2(33.3)	2(33.3)	0(0.0)	1(16.7)	1(16.7)	
	50대 이상	3	0(0.0)	1(33.3)	0(0.0)	1(33.3)	1(33.3)	
학교급	중 학교	39	10(25.6)	11(28.2)	3(7.7)	13(33.3)	2(5.1)	$x^2=1.157$ $p=.885$
	고등 학교	17	4(23.5)	6(35.3)	1(5.9)	6(35.3)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	5(21.7)	7(30.4)	1(4.3)	10(43.5)	0(0.0)	$x^2=27.596^*$ $p=.035$
	5-10년	24	7(29.2)	8(33.3)	3(12.5)	6(25.0)	0(0.0)	
	11-15년	4	1(25.0)	1(25.0)	0(0.0)	2(50.0)	0(0.0)	
	16-20년	2	1(50.0)	0(0.0)	0(0.0)	0(0.0)	1(50.0)	
	20년 이상	3	0(0.0)	1(33.3)	0(0.0)	1(33.3)	1(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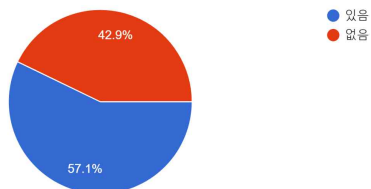
융합 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7(21.9)	10(31.3)	3(9.4)	11(34.4)	1(3.1)	$x^2=0.878$ $p=.928$
	없다	24	7(29.2)	7(29.2)	1(4.2)	8(33.3)	1(4.2)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6(20.7)	9(31.0)	2(6.9)	10(34.5)	2(6.9)	$x^2=2.329$ $p=.676$
	없다	27	8(29.6)	8(29.6)	2(7.4)	9(33.3)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6(18.2)	11(33.3)	1(3.0)	13(39.4)	2(6.1)	$x^2=10.911$ $p=.207$
	보통	21	6(28.6)	6(28.6)	3(14.3)	6(28.6)	0(0.0)	
	낮음	2	2(100.0)	0(0.0)	0(0.0)	0(0.0)	0(0.0)	

* $p < .05$

3.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

설문 문항의 세 번째 영역은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와 운영 경험이 없는 교사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참여자 56명 중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는 32명(57.1%), 운영 경험이 없는 교사는 24명(42.9%)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번째 영역의 설문 내용은 두 집단의 차이를 두고 구성하였으며 최근 선행연구 논문의 내용을 참고 하여 ‘AI 관련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내용을 공통 응답할 수 있도록 12번 문항에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
 응답 56개



[그림 3]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

가.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1) 음악과 융합하였던 교과 현황

음악교과와 가장 많이 융합하였던 교과 영역에 대한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현황을 빈도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인문학교과’ 12명(37.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예술체육교과’ 9명(28.1%), ‘공학기술교과(AI포함)’ 7명(21.9%), ‘수리과학교과’ 2명(6.3%), ‘기타’ 2명(3.6%)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한국사’, ‘역사’ 등이 있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8> 음악과 융합의 교과 영역

구분	전체	표본 수	수리과학	공학기술	인문학	예술체육	기타	유의차 검증
		32	N(%)	N(%)	N(%)	N(%)	N(%)	
		32	2(6.3)	7(21.9)	12(37.5)	9(28.1)	2(6.3)	
성별	남 교사	7	0(0.0)	2(28.6)	2(28.6)	3(42.9)	0(0.0)	$x^2=2.186$ $p=.702$
	여 교사	25	2(8.0)	5(20.0)	10(40.0)	6(24.0)	2(8.0)	
연령	20대	1	0(0.0)	0(0.0)	0(0.0)	1(100.0)	0(0.0)	$x^2=6.177$ $p=.907$
	30대	26	2(7.7)	6(23.1)	9(34.6)	7(26.9)	2(7.7)	
	40대	3	0(0.0)	0(0.0)	2(66.7)	1(33.3)	0(0.0)	
	50대 이상	2	0(0.0)	1(50.0)	1(50.0)	0(0.0)	0(0.0)	
학교급	중 학교	21	2(9.5)	5(23.8)	8(38.1)	5(23.8)	1(4.8)	$x^2=1.779$ $p=.776$
	고등 학교	11	0(0.0)	2(18.2)	4(36.4)	4(36.4)	1(9.1)	
교육 경력	5년 미만	7	1(14.3)	1(14.3)	1(14.3)	4(57.1)	0(0.0)	$x^2=8.780$ $p=.722$
	5-10년	20	1(5.0)	4(20.0)	8(40.0)	5(25.0)	2(10.0)	
	11-15년	3	0(0.0)	1(33.3)	2(66.7)	0(0.0)	0(0.0)	
	16-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0(0.0)	1(50.0)	1(50.0)	0(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1(4.0)	7(28.0)	10(40.0)	7(28.0)	0(0.0)	$x^2=10.220^*$ $p=.037$
	없다	7	1(14.3)	0(0.0)	2(28.6)	2(28.6)	2(28.6)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1(4.5)	5(22.7)	9(40.9)	6(27.3)	1(4.5)	$x^2=3.675$ $p=.885$
	보통	9	1(11.1)	2(22.2)	3(33.3)	2(22.2)	1(11.1)	
	낮음	1	0(0.0)	0(0.0)	0(0.0)	1(100.0)	0(0.0)	

* $p < .05$

2) 특정 교과 선택 이유

앞의 1번 문항에서 응답한 교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 현황을 빈도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학생들의 흥미 고려’ 12명(37.5%)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선생님(음악교사)의 타 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 고려’ 9명(28.1%), ‘타 교과 교사의 제안 및/또는 의지와 상관 없는 강요’ 3명(9.4%), ‘음악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어서’ 2명(6.3%), ‘기타’ 6명(18.6%)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수업 주제와 맞아서’, ‘시대적 흐름 고려(4차 산업혁명)’, ‘예술가곡(시+음악), 음악사,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표제음악 등 음악이 원래 여러 인문학적 요소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접근이 쉬워서’, ‘시대적 요구와 흐름’, ‘학생들의 호기심, 요청-구글 음악 만들기’, ‘학교 특성상(디자인고) 미술과와 융합함’ 등의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9> 위(1번 문항)의 교과 선택 이유

구분	전체	표본 수	교과서 제시	참여 강요	흥미 고려	교사의 지식 이해도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32	2(6.3)	3(9.4)	12(37.5)	9(28.1)	6(18.8)	
성별	남 교사	7	0(0.0)	1(14.3)	3(42.9)	1(14.3)	2(28.6)	$x^2=1.930$ $p=.749$
	여 교사	25	2(8.0)	2(8.0)	9(36.0)	8(32.0)	4(16.0)	
연령	20대	1	0(0.0)	0(0.0)	0(0.0)	0(0.0)	1(100.0)	$x^2=10.963$

	30대	26	2(7.7)	2(7.7)	11(42.3)	8(30.8)	3(11.5)	$p=.532$
	40대	3	0(0.0)	1(33.3)	0(0.0)	1(33.3)	1(33.3)	
	50대 이상	2	0(0.0)	0(0.0)	1(50.0)	0(0.0)	1(50.0)	
학교 급	중 학교	21	2(9.5)	2(9.5)	9(42.9)	6(28.6)	2(9.5)	$x^2=4.294$ $p=.368$
	고등 학교	11	0(0.0)	1(9.1)	3(27.3)	3(27.3)	4(36.4)	
교육 경력	5년 미만	7	0(0.0)	0(0.0)	4(57.1)	2(28.6)	1(14.3)	$x^2=11.185$ $p=.513$
	5- 10년	20	2(10.0)	3(15.0)	7(35.0)	6(30.0)	2(10.0)	
	11- 15년	3	0(0.0)	0(0.0)	0(0.0)	1(33.3)	2(66.7)	
	16- 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0(0.0)	0(0.0)	1(50.0)	0(0.0)	1(5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2(8.0)	1(4.0)	10(40.0)	7(28.0)	5(20.0)	$x^2=4.368$ $p=.358$
	없다	7	0(0.0)	2(28.6)	2(28.6)	2(28.6)	1(14.3)	
융합 교육 에 대한 관심 도	높음	22	1(4.5)	2(9.1)	8(36.4)	6(27.3)	5(22.7)	$x^2=2.747$ $p=.949$
	보통	9	1(11.1)	1(11.1)	3(33.3)	3(33.3)	1(11.1)	
	낮음	1	0(0.0)	0(0.0)	1(100.0)	0(0.0)	0(0.0)	

3)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차시 구성

1번, 2번 문항에 응답한 음악중심 융합수업은 몇 차시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는가에 대한 응답 현황을 빈도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4-7차시’ 12명(37.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차시 미만’ 10명(28.1%), ‘8-11차시’ 6명(18.8%), ‘12차시 이상’ 4명(1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0>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차시 구성

구분	전체	표본 수	4차시 미만	4-7차시	8-11차시	12차시 이상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32	10(31.3)	12(37.5)	6(18.8)	4(12.5)	0(0.0)	
성별	남 교사	7	1(14.3)	3(42.9)	1(14.3)	2(28.6)	0(0.0)	$x^2=2.840$ $p=.417$
	여 교사	25	9(36.0)	9(36.0)	5(20.0)	2(8.0)	0(0.0)	
연령	20대	1	0(0.0)	1(100.0)	0(0.0)	0(0.0)	0(0.0)	$x^2=8.540$ $p=.481$
	30대	26	9(34.6)	10(38.5)	5(19.2)	2(7.7)	0(0.0)	
	40대	3	1(33.3)	1(33.3)	0(0.0)	1(33.3)	0(0.0)	
	50대 이상	2	0(0.0)	0(0.0)	1(50.0)	1(50.0)	0(0.0)	
학교급	중 학교	21	8(38.1)	7(33.3)	2(9.5)	4(19.0)	0(0.0)	$x^2=6.608$ $p=.108$
	고등 학교	11	2(18.2)	5(45.5)	4(36.4)	0(0.0)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7	4(57.1)	2(28.6)	0(0.0)	1(14.3)	0(0.0)	$x^2=12.230$ $p=.201$
	5- 10년	20	6(30.0)	8(40.0)	5(25.0)	1(5.0)	0(0.0)	
	11- 15년	3	0(0.0)	2(66.7)	0(0.0)	1(33.3)	0(0.0)	
	16- 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0(0.0)	0(0.0)	1(50.0)	1(5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6(24.0)	10(40.0)	6(24.0)	3(12.0)	0(0.0)	$x^2=3.816$ $p=.282$
	없다	7	4(57.1)	2(28.6)	0(0.0)	1(14.3)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6(27.3)	9(40.9)	3(13.6)	4(18.2)	0(0.0)	$x^2=5.929$ $p=.431$
	보통	9	4(44.4)	2(22.2)	3(33.3)	0(0.0)	0(0.0)	
	낮음	1	0(0.0)	1(100.0)	0(0.0)	0(0.0)	0(0.0)	

4)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위한 교재연구 소요 시간

3번 문항에서 응답한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을 위해 교사가 교재연구에 소요한 시간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응답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주 5-10시간’ 14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5시간 미만’ 11명(34.4%), ‘주 11-15시간’ 5명(15.6%), ‘주 15시간 이상’ 2명(6.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융합교육 관련 연수경험($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1>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교재연구 시간

구분	전체	표본 수	주 5시간	주 5-10	주 11-15	주 15시간	기타	유의차 검증
			미만 N(%)	시간 N(%)	시간 N(%)	이상 N(%)	N(%)	
		32	11(34.4)	14(43.8)	5(15.6)	2(6.3)	0(0.0)	
성별	남 교사	7	3(42.9)	1(14.3)	3(42.9)	0(0.0)	0(0.0)	$x^2=6.778$ $p=.079$
	여 교사	25	8(32.0)	13(52.0)	2(8.0)	2(8.0)	0(0.0)	
연령	20대	1	1(100.0)	0(0.0)	0(0.0)	0(0.0)	0(0.0)	$x^2=7.959$ $p=.538$
	30대	26	8(30.8)	13(50.0)	3(11.5)	2(7.7)	0(0.0)	
	40대	3	2(66.7)	0(0.0)	1(33.3)	0(0.0)	0(0.0)	
	50대 이상	2	0(0.0)	1(50.0)	1(50.0)	0(0.0)	0(0.0)	
학교급	중 학교	21	7(33.3)	8(38.1)	4(19.0)	2(9.5)	0(0.0)	$x^2=1.971$ $p=.578$
	고등학교	11	4(36.4)	6(54.5)	1(9.1)	0(0.0)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7	4(57.1)	1(14.3)	0(0.0)	2(28.6)	0(0.0)	$x^2=14.271$ $p=.113$
	5-10년	20	6(30.0)	11(55.0)	3(15.0)	0(0.0)	0(0.0)	
	11-15년	3	1(33.3)	1(33.3)	1(33.3)	0(0.0)	0(0.0)	
	16-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0(0.0)	1(50.0)	1(50.0)	0(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8(32.0)	12(48.0)	5(20.0)	0(0.0)	0(0.0)	$x^2=9.202^*$ $p=.027$
	없다	7	3(42.9)	2(28.6)	0(0.0)	2(28.6)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6(27.3)	10(45.5)	4(18.2)	2(9.1)	0(0.0)	$x^2=3.569$ $p=.735$
	보통	9	4(44.4)	4(44.4)	1(11.1)	0(0.0)	0(0.0)	
	낮음	1	1(100.0)	0(0.0)	0(0.0)	0(0.0)	0(0.0)	

* $p < .05$

5) 음악중심 융합수업 구성시 중점 방향

세 번째 영역의 5번 문항은 앞서 응답한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구성할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문항으로 응답 현황에 대한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역동적인 학습활동’ 14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10명(31.3%),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7명(21.9%), ‘기타’ 1명(3.1%)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학생들의 요청사항 반영’이 있었다.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과 ‘교육경력’에서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났다.

<표 22>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구성의 중점 사항

구분	전체	표본 수	음악교과	자기주도적	역동적인	수업	기타	유의차 검증
			내용이해	학습활동	학습활동	집중도		
			N(%)	N(%)	N(%)	N(%)	N(%)	
		32	0(0.0)	10(31.3)	14(43.8)	7(21.9)	1(3.1)	
성별	남	7	0(0.0)	3(42.9)	2(28.6)	1(14.3)	1(14.3)	$x^2=4.665$ $p=.198$
	여	25	0(0.0)	7(28.0)	12(48.0)	6(24.0)	0(0.0)	
연령	20대	1	0(0.0)	0(0.0)	0(0.0)	1(100.0)	0(0.0)	$x^2=23.619^{**}$ $p=.005$
	30대	26	0(0.0)	7(26.9)	14(53.8)	5(19.2)	0(0.0)	
	40대	3	0(0.0)	2(66.7)	0(0.0)	1(33.3)	0(0.0)	
	50대 이상	2	0(0.0)	1(50.0)	0(0.0)	0(0.0)	1(50.0)	
학교급	중	21	0(0.0)	9(42.9)	7(33.3)	4(19.0)	1(4.8)	$x^2=4.896$ $p=.180$
	고등	11	0(0.0)	1(9.1)	7(63.6)	3(27.3)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7	0(0.0)	0(0.0)	3(42.9)	4(57.1)	0(0.0)	$x^2=25.342^{**}$ $p=.003$
	5-10년	20	0(0.0)	7(35.0)	10(50.0)	3(15.0)	0(0.0)	
	11-15년	3	0(0.0)	2(66.7)	1(33.3)	0(0.0)	0(0.0)	
	16-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0(0.0)	1(50.0)	0(0.0)	0(0.0)	1(5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0(0.0)	9(36.0)	11(44.0)	4(16.0)	1(4.0)	$x^2=2.910$ $p=.406$
	없다	7	0(0.0)	1(14.3)	3(42.9)	3(42.9)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0(0.0)	6(27.3)	10(45.5)	5(22.7)	1(4.5)	$x^2=2.771$ $p=.837$
	보통	9	0(0.0)	3(33.3)	4(44.4)	2(22.2)	0(0.0)	
	낮음	1	0(0.0)	1(100.0)	0(0.0)	0(0.0)	0(0.0)	

** $p < .01$

6) ‘평가’와 ‘생활기록부’ 반영의 활용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통한 ‘평가’와 생활기록부 반영의 활용에 대하여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수행평가 및 생활기록부 작성 참고 자료 모두 활용’ 25명(78.1%), ‘수행평가 및 생활기록부 작성 참고 자료 모두 활용하지 않음’ 3명(9.4%), ‘수행평가 자료로만 활용’ 2명(6.3%), ‘생활기록부 작성 참고 자료로만 활용’ 2명(6.3%) 순으로 조사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로는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이는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수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평가 활용

구분	전체	표본 수	수행평가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생활기록부	모두 활용하지 않음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32	2(6.3)	2(6.3)	0(0.0)	28(87.5)	0(0.0)	
성별	남 교사	7	0(0.0)	0(0.0)	0(0.0)	7(100.0)	0(0.0)	$x^2=1.280$ $p=.527$
	여 교사	25	2(8.0)	2(8.0)	0(0.0)	21(84.0)	0(0.0)	
연령	20대	1	0(0.0)	0(0.0)	0(0.0)	1(100.0)	0(0.0)	$x^2=1.055$ $p=.983$
	30대	26	2(7.7)	2(7.7)	0(0.0)	22(84.6)	0(0.0)	
	40대	3	0(0.0)	0(0.0)	0(0.0)	3(100.0)	0(0.0)	
	50대 이상	2	0(0.0)	0(0.0)	0(0.0)	2(100.0)	0(0.0)	

학교급	중학교	21	2(9.5)	1(4.8)	0(0.0)	18(85.7)	0(0.0)	$x^2=1.286$ $p=.526$
	고등학교	11	0(0.0)	1(9.1)	0(0.0)	10(90.9)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7	1(14.3)	1(14.3)	0(0.0)	5(71.4)	0(0.0)	$x^2=2.482$ $p=.871$
	5-10년	20	1(5.0)	1(5.0)	0(0.0)	18(90.0)	0(0.0)	
	11-15년	3	0(0.0)	0(0.0)	0(0.0)	3(100.0)	0(0.0)	
	16-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0(0.0)	0(0.0)	0(0.0)	2(100.0)	0(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2(8.0)	0(0.0)	0(0.0)	23(92.0)	0(0.0)	$x^2=7.967^*$ $p=.019$
	없다	7	0(0.0)	2(28.6)	0(0.0)	5(71.4)	0(0.0)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2(9.1)	1(4.5)	0(0.0)	19(86.4)	0(0.0)	$x^2=1.437$ $p=.838$
	보통	9	0(0.0)	1(11.1)	0(0.0)	8(88.9)	0(0.0)	
	낮음	1	0(0.0)	0(0.0)	0(0.0)	1(100.0)	0(0.0)	

* $p < .05$

7)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이후 느낀 어려운 점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이후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과중한 업무로 수업 준비의 어려움’ 11명(34.4%)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한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8명(25%), ‘교수·학습 자료 부족’ 7명(21.9%), ‘교사의 전문성 부족’ 4명(12.5%), ‘기타’ 2명(6.3%)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주 1회 음악수업 시수’, ‘음악교과-타교과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대한 학생의 기초 지식의 차이로 인한 출발점을 잡는 포인트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음’이 있었다.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4>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느낀점

구분	전체	표본 수	전문성 부족	자료 부족	학급당 학생 수 과다	업무 과중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32	4(12.5)	7(21.9)	8(25.0)	11(34.4)	2(6.3)	
성별	남 교사	7	1(14.3)	1(14.3)	2(28.6)	3(42.9)	0(0.0)	$x^2=1.052$ $p=.902$
	여 교사	25	3(12.0)	6(24.0)	6(24.0)	8(32.0)	2(8.0)	
연령	20대	1	0(0.0)	0(0.0)	0(0.0)	1(100.0)	0(0.0)	$x^2=11.147$ $p=.516$
	30대	26	3(11.5)	6(23.1)	7(26.9)	9(34.6)	1(3.8)	
	40대	3	0(0.0)	0(0.0)	1(33.3)	1(33.3)	1(33.3)	
	50대 이상	2	1(50.0)	1(50.0)	0(0.0)	0(0.0)	0(0.0)	
학교급	중 학교	21	2(9.5)	5(23.8)	6(28.6)	6(28.6)	2(9.5)	$x^2=2.495$ $p=.645$
	고등 학교	11	2(18.2)	2(18.2)	2(18.2)	5(45.5)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7	0(0.0)	2(28.6)	1(14.3)	4(57.1)	0(0.0)	$x^2=12.249$ $p=.426$
	5-10년	20	3(15.0)	4(20.0)	6(30.0)	6(30.0)	1(5.0)	
	11-15년	3	0(0.0)	0(0.0)	1(33.3)	1(33.3)	1(33.3)	
	16-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1(50.0)	1(50.0)	0(0.0)	0(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4(16.0)	5(20.0)	6(24.0)	8(32.0)	2(8.0)	$x^2=2.097$ $p=.718$
	없다	7	0(0.0)	2(28.6)	2(28.6)	3(42.9)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3(13.6)	4(18.2)	5(22.7)	8(36.4)	2(9.1)	$x^2=4.177$ $p=.841$
	보통	9	1(11.1)	3(33.3)	3(33.3)	2(22.2)	0(0.0)	
	낮음	1	0(0.0)	0(0.0)	0(0.0)	1(100.0)	0(0.0)	

8) 최근 3년 이내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운영 현황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 중 최근 3년 이내 해당 수업을 운영한 횟수에 대한 응답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4회 미만’ 20명(62.5%)으로 가장 높았으며, ‘4-7회’ 8명(25%), ‘8-11회’ 4명(12.5%)순으로 조사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5> 최근 3년 이내 음악중심 융합수업 횟수

구분	전체	표본 수	4회 미만	4-7회	8-11회	12회 이상	기타	유의차 검증
		32	N(%)	N(%)	N(%)	N(%)	N(%)	
성별	남 교사	7	1(14.3)	4(57.1)	2(28.6)	0(0.0)	0(0.0)	$x^2=8.887^*$ $p=.012$
	여 교사	25	19(76.0)	4(16.0)	2(8.0)	0(0.0)	0(0.0)	
연령	20대	1	0(0.0)	1(100.0)	0(0.0)	0(0.0)	0(0.0)	$x^2=11.354$ $p=.078$
	30대	26	18(69.2)	5(19.2)	3(11.5)	0(0.0)	0(0.0)	
	40대	3	2(66.7)	0(0.0)	1(33.3)	0(0.0)	0(0.0)	
	50대 이상	2	0(0.0)	2(100.0)	0(0.0)	0(0.0)	0(0.0)	
학교급	중 학교	21	15(71.4)	4(19.0)	2(9.5)	0(0.0)	0(0.0)	$x^2=2.078$ $p=.354$
	고등 학교	11	5(45.5)	4(36.4)	2(18.2)	0(0.0)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7	4(57.1)	2(28.6)	1(14.3)	0(0.0)	0(0.0)	$x^2=8.366$ $p=.213$
	5-10년	20	14(70.0)	4(20.0)	2(10.0)	0(0.0)	0(0.0)	
	11-15년	3	2(66.7)	0(0.0)	1(33.3)	0(0.0)	0(0.0)	
	16-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0(0.0)	2(100.0)	0(0.0)	0(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15(60.0)	7(28.0)	3(12.0)	0(0.0)	0(0.0)	$x^2=0.549$ $p=.760$
	없다	7	5(71.4)	1(14.3)	1(14.3)	0(0.0)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12(54.5)	7(31.8)	3(13.6)	0(0.0)	0(0.0)	$x^2=6.921$ $p=.140$
	보통	9	8(88.9)	0(0.0)	1(11.1)	0(0.0)	0(0.0)	
	낮음	1	0(0.0)	1(100.0)	0(0.0)	0(0.0)	0(0.0)	

* $p < .05$

9) 음악중심 융합수업 지속 운영 의향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향에 대한 응답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32명 중 '있다' 31명(96.9%), '없다' 1명(3.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성별,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6>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계획

구분	전체	표본 수	있다	없다	유의차 검증
			N(%)	N(%)	
		32	31(96.9)	1(3.1)	
성별	남교사	7	7(100.0)	0(0.0)	$x^2=0.289$ $p=.591$
	여교사	25	24(96.0)	1(4.0)	
연령	20대	1	1(100.0)	0(0.0)	$x^2=0.238$ $p=.971$
	30대	26	25(96.2)	1(3.8)	
	40대	3	3(100.0)	0(0.0)	
	50대 이상	2	2(100.0)	0(0.0)	
학교급	중학교	21	20(95.2)	1(4.8)	$x^2=0.541$ $p=.462$
	고등학교	11	11(100.0)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7	7(100.0)	0(0.0)	$x^2=0.619$ $p=.892$
	5-10년	20	19(95.0)	1(5.0)	
	11-15년	3	3(100.0)	0(0.0)	
	16-20년	0	0(0.0)	0(0.0)	
	20년 이상	2	2(100.0)	0(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25(100.0)	0(0.0)	$x^2=3.687$ $p=.055$
	없다	7	6(85.7)	1(14.3)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22(100.0)	0(0.0)	$x^2=2.638$ $p=.267$
	보통	9	8(88.9)	1(11.1)	
	낮음	1	1(100.0)	0(0.0)	

10) 음악중심 융합수업 구상을 위한 정보수집 경로

음악중심 융합수업 구상을 위한 참고 자료 및 아이디어, 정보수집 경로에 대한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자료 검색’ 17명(53.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업자의 배경지식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서 관련 자료’ 10명(31.3%), ‘동료 음악교사’ 2명(6.3%), ‘교사 연구 동아리’ 2명(6.3%), ‘기타’ 1명(3.1%)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개인적 연구’가 있었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교육경력’($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7>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정보수집 방법

구분	전체	표본 수	동료 교사	배경지식, 제공자료	인터넷 SNS 등	교사 연구 동아리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32	2(6.3)	10(31.3)	17(53.1)	2(6.3)	1(3.1)	
성별	남 교사	7	0(0.0)	4(57.1)	2(28.6)	1(14.3)	0(0.0)	$x^2=4.705$ $p=.319$
	여 교사	25	2(8.0)	6(24.0)	15(60.0)	1(4.0)	1(4.0)	
연령	20대	1	0(0.0)	1(100.0)	0(0.0)	0(0.0)	0(0.0)	$x^2=19.745$ $p=.072$
	30대	26	2(7.7)	8(30.8)	15(57.7)	1(3.8)	0(0.0)	
	40대	3	0(0.0)	1(33.3)	1(33.3)	0(0.0)	1(33.3)	
	50대 이상	2	0(0.0)	0(0.0)	1(50.0)	1(50.0)	0(0.0)	
학교급	중 학교	21	2(9.5)	6(28.6)	10(47.6)	2(9.5)	1(4.8)	$x^2=3.108$ $p=.540$
	고등 학교	11	0(0.0)	4(36.4)	7(63.6)	0(0.0)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7	2(28.6)	2(28.6)	2(28.6)	1(14.3)	0(0.0)	$x^2=30.414^{**}$ $p=.002$
	5-10년	20	0(0.0)	6(30.0)	14(70.0)	0(0.0)	0(0.0)	
	11-15년	3	0(0.0)	2(66.7)	0(0.0)	0(0.0)	1(33.3)	
	16-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0(0.0)	0(0.0)	1(50.0)	1(5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1(4.0)	7(28.0)	14(56.0)	2(8.0)	1(4.0)	$x^2=2.330$ $p=.675$
	없다	7	1(14.3)	3(42.9)	3(42.9)	0(0.0)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2(9.1)	7(31.8)	10(45.5)	2(9.1)	1(4.5)	$x^2=5.827$ $p=.667$
	보통	9	0(0.0)	2(22.2)	7(77.8)	0(0.0)	0(0.0)	
	낮음	1	0(0.0)	1(100.0)	0(0.0)	0(0.0)	0(0.0)	

** $p < .01$

11) 음악중심 융합수업 관련 연수 중 관심 분야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관련 연수를 받게 된다면 관심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에 대한 응답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자료 활용 능력(디지털, AI, 영상 편집 등)’ 12명(37.5%)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결과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다음으로는 ‘학생활동 및 수업 전략’ 10명(31.3%), ‘교과 간 교육과정 연계’ 6명(18.8%), ‘교과서 재구성’ 2명(6.3%), ‘기타’ 2명(6.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한 가지 분야로 연수 받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연수를 받고 싶다’, ‘다른 음악교사의 사례 공유가 다량 포함된 연수’ 등이 있었다.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교육경력에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표 28>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위한 연수의 관심

구분	전체	표본 수	교과 연계	자료 활용 능력	교과서 재구성	학생활동 수업전략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32	6(18.8)	12(37.5)	2(6.3)	10(31.3)	2(6.3)	
성별	남 교사	7	0(0.0)	3(42.9)	0(0.0)	3(42.9)	1(14.3)	$x^2=3.621$ $p=.460$
	여 교사	25	6(24.0)	9(36.0)	2(8.0)	7(28.0)	1(4.0)	
연령	20대	1	1(100.0)	0(0.0)	0(0.0)	0(0.0)	0(0.0)	$x^2=13.313$ $p=.347$
	30대	26	4(15.4)	11(42.3)	2(7.7)	8(30.8)	1(3.8)	
	40대	3	1(33.3)	1(33.3)	0(0.0)	1(33.3)	0(0.0)	

	50대 이상	2	0(0.0)	0(0.0)	0(0.0)	1(50.0)	1(50.0)	
학교급	중학교	21	3(14.3)	10(47.6)	1(4.8)	5(23.8)	2(9.5)	$x^2=4.664$ $p=.324$
	고등학교	11	3(27.3)	2(18.2)	1(9.1)	5(45.5)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7	1(14.3)	6(85.7)	0(0.0)	0(0.0)	0(0.0)	$x^2=22.770^*$ $p=.030$
	5-10년	20	3(15.0)	5(25.0)	2(10.0)	9(45.0)	1(5.0)	
	11-15년	3	2(66.7)	1(33.3)	0(0.0)	0(0.0)	0(0.0)	
	16-20년	0	0(0.0)	0(0.0)	0(0.0)	0(0.0)	0(0.0)	
	20년 이상	2	0(0.0)	0(0.0)	0(0.0)	1(50.0)	1(5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5	4(16.0)	9(36.0)	1(4.0)	9(36.0)	2(8.0)	$x^2=2.840$ $p=.585$
	없다	7	2(28.6)	3(42.9)	1(14.3)	1(14.3)	0(0.0)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22	6(27.3)	8(36.4)	0(0.0)	6(27.3)	2(9.1)	$x^2=10.764$ $p=.215$
	보통	9	0(0.0)	3(33.3)	2(22.2)	4(44.4)	0(0.0)	
	낮음	1	0(0.0)	1(100.0)	0(0.0)	0(0.0)	0(0.0)	

* $p < .05$

나.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1) 음악중심 융합수업 기피 이유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여교사 24명을 대상으로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기피한 이유에 대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응답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교재연구(개발) 시간 부족’ 11명(45.8%)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수업 외 행정업무 증가’ 5명(20.8%), ‘평가의 어려움’ 4명(16.7%), ‘타 교과에 대한 배경 지식(이해) 부족’ 2명(8.3%), ‘기타’ 2명(8.3%)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응답으로는 ‘음악교사로서 융합을 하고싶으나 타 교과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음’, ‘타 교과 연계나 시수 확보가 힘든 편’의 응답이 있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 학교

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9> 음악중심 융합수업 기피 이유

구분	전체	표본 수	타교과 배경지식 부족	교재연구 시간 부족	수업 외 행정업무 증가	평가의 어려움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24	2(8.3)	11(45.8)	5(20.8)	4(16.7)	2(8.3)	
연령	20대	7	1(14.3)	3(42.9)	1(14.3)	2(28.6)	0(0.0)	$x^2=14.323$ $p=.281$
	30대	13	1(7.7)	7(53.8)	3(23.1)	0(0.0)	2(15.4)	
	40대	3	0(0.0)	1(33.3)	0(0.0)	2(66.7)	0(0.0)	
	50대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학교급	중 학교	18	2(11.1)	9(50.0)	2(11.1)	3(16.7)	2(11.1)	$x^2=4.873$ $p=.301$
	고등학교	6	0(0.0)	2(33.3)	3(50.0)	1(16.7)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16	1(6.3)	9(56.3)	4(25.0)	2(12.5)	0(0.0)	$x^2=23.032$ $p=.113$
	5-10년	4	1(25.0)	1(25.0)	0(0.0)	1(25.0)	1(25.0)	
	11-15년	1	0(0.0)	0(0.0)	0(0.0)	0(0.0)	1(100.0)	
	16-20년	2	0(0.0)	1(50.0)	0(0.0)	1(50.0)	0(0.0)	
	20년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0(0.0)	2(50.0)	0(0.0)	1(25.0)	1(25.0)	$x^2=3.218$ $p=.522$
	없다	20	2(10.0)	9(45.0)	5(25.0)	3(15.0)	1(5.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0(0.0)	5(45.5)	3(27.3)	2(18.2)	1(9.1)	$x^2=6.904$ $p=.547$
	보통	12	2(16.7)	6(50.0)	1(8.3)	2(16.7)	1(8.3)	
	낮음	1	0(0.0)	0(0.0)	1(100.0)	0(0.0)	0(0.0)	

2)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필요성

음악중심 융합수업이 필요성에 대하여 해당 수업 운영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인식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기타’의 응답은 0명으로 조사되었고, ‘필요하다’ 20명(83.3%), ‘매우 필요하다’ 3명(12.5%), ‘필요하지 않다’ 1명(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문항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0> 음악중심 융합수업 필요성

구분	전체	표본 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유의차 검증
			N(%)	N(%)	N(%)	N(%)	N(%)	
		24	3(12.5)	20(83.3)	1(4.2)	0(0.0)	0(0.0)	
연령	20대	7	1(14.3)	5(71.4)	1(14.3)	0(0.0)	0(0.0)	$x^2=3.288$ $p=.772$
	30대	13	2(15.4)	11(84.6)	0(0.0)	0(0.0)	0(0.0)	
	40대	3	0(0.0)	3(100.0)	0(0.0)	0(0.0)	0(0.0)	
	50대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학교급	중학교	18	3(16.7)	15(83.3)	0(0.0)	0(0.0)	0(0.0)	$x^2=4.000$ $p=.135$
	고등학교	6	0(0.0)	5(83.3)	1(16.7)	0(0.0)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16	3(18.8)	12(75.0)	1(6.3)	0(0.0)	0(0.0)	$x^2=2.400$ $p=.966$
	5-10년	4	0(0.0)	4(100.0)	0(0.0)	0(0.0)	0(0.0)	
	11-15년	1	0(0.0)	1(100.0)	0(0.0)	0(0.0)	0(0.0)	
	16-20년	2	0(0.0)	2(100.0)	0(0.0)	0(0.0)	0(0.0)	
	20년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1(25.0)	3(75.0)	0(0.0)	0(0.0)	0(0.0)	$x^2=0.840$ $p=.657$
	없다	20	2(10.0)	17(85.0)	1(5.0)	0(0.0)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3(27.3)	7(63.6)	1(9.1)	0(0.0)	0(0.0)	$x^2=5.673$ $p=.225$
	보통	12	0(0.0)	12(100.0)	0(0.0)	0(0.0)	0(0.0)	
	낮음	1	0(0.0)	1(100.0)	0(0.0)	0(0.0)	0(0.0)	

3)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계획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향후 해당 수업을 운영할 계획에 대한 응답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있다’ 10명(41.7%), ‘조금 있다’ 8명(33.3%), ‘보통이다’ 5명(20.8%), ‘학생 수업을 위해 운영할 계획이다’ 1명(4.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표 31> 향후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계획

구분	전체	표본 수	있다	조금 있다	보통이다	학생 수업 위해 운영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24	10(41.7)	8(33.3)	5(20.8)	1(4.2)	
연령	20대	7	2(28.6)	4(57.1)	1(14.3)	0(0.0)	0(0.0)	$x^2=4.607$ $p=.867$
	30대	13	6(46.2)	3(23.1)	3(23.1)	1(7.7)	0(0.0)	
	40대	3	1(33.3)	1(33.3)	1(33.3)	0(0.0)	0(0.0)	
	50대 이상	1	1(100.0)	0(0.0)	0(0.0)	0(0.0)	0(0.0)	
학교급	중 학교	18	7(38.9)	8(44.4)	2(11.1)	1(5.6)	0(0.0)	$x^2=6.400$ $p=.094$
	고등 학교	6	3(50.0)	0(0.0)	3(50.0)	0(0.0)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16	6(37.5)	5(31.3)	4(25.0)	1(6.3)	0(0.0)	$x^2=6.788$ $p=.871$
	5- 10년	4	2(50.0)	2(50.0)	0(0.0)	0(0.0)	0(0.0)	
	11- 15년	1	0(0.0)	1(100.0)	0(0.0)	0(0.0)	0(0.0)	
	16- 20년	2	1(50.0)	0(0.0)	1(50.0)	0(0.0)	0(0.0)	
	20년 이상	1	1(100.0)	0(0.0)	0(0.0)	0(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3(75.0)	1(25.0)	0(0.0)	0(0.0)	0(0.0)	$x^2=2.580$ $p=.461$
	없다	20	7(35.0)	7(35.0)	5(25.0)	1(5.0)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9(81.8)	0(0.0)	2(18.2)	0(0.0)	0(0.0)	$x^2=16.468^*$ $p=.011$
	보통	12	1(8.3)	7(58.3)	3(25.0)	1(8.3)	0(0.0)	
	낮음	1	0(0.0)	1(100.0)	0(0.0)	0(0.0)	0(0.0)	

* $p < .05$

4) 학생들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희망도

이 문항은 음악중심 융합수업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생각할 때, ‘학생들은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 현황을 알아보고자 구성하였다. 응답 현황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어느 정도 희망할 것이다’ 8명(33.3%), ‘보통일 것이다’ 8명(33.3%)으로 동일하게 조사되었고 ‘잘 모르겠다’ 4명(16.7%),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3명(12.5%), ‘매우 희망할 것이다’ 1명(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 음악중심 융합수업에 대한 학생의 요구

구분	전체	표본 수	매우 희망	어느정도 희망	보통이다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24	1(4.2)	8(33.3)	8(33.3)	3(12.5)	4(16.7)	
연령	20대	7	1(14.3)	1(14.3)	2(28.6)	2(28.6)	1(14.3)	$x^2=16.000$ $p=.191$
	30대	13	0(0.0)	7(53.8)	2(15.4)	1(7.7)	3(23.1)	
	40대	3	0(0.0)	0(0.0)	3(100.0)	0(0.0)	0(0.0)	
	50대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학교급	중학교	18	1(5.6)	6(33.3)	6(33.3)	2(11.1)	3(16.7)	$x^2=0.444$ $p=.979$
	고등학교	6	0(0.0)	2(33.3)	2(33.3)	1(16.7)	1(16.7)	
교육경력	5년 미만	16	1(6.3)	8(50.0)	2(12.5)	2(12.5)	3(18.8)	$x^2=19.375$ $p=.250$
	5-10년	4	0(0.0)	0(0.0)	3(75.0)	1(25.0)	0(0.0)	

	11-15년	1	0(0.0)	0(0.0)	0(0.0)	0(0.0)	1(100.0)	
	16-20년	2	0(0.0)	0(0.0)	2(100.0)	0(0.0)	0(0.0)	
	20년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0(0.0)	1(25.0)	2(50.0)	0(0.0)	1(25.0)	$x^2=1.500$ $p=.827$
	없다	20	1(5.0)	7(35.0)	6(30.0)	3(15.0)	3(15.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1(9.1)	4(36.4)	4(36.4)	1(9.1)	1(9.1)	$x^2=4.598$ $p=.800$
	보통	12	0(0.0)	4(33.3)	3(25.0)	2(16.7)	3(25.0)	
	낮음	1	0(0.0)	0(0.0)	1(100.0)	0(0.0)	0(0.0)	

5) 음악교과와 융합하여 운영하고 싶은 교과 영역

<표 33>는 만약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면 운영하고 싶은 교과 영역에 대하여 해당 수업 운영 경험이 없는 응답자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교차분석 표이다. 빈도분석 결과, ‘공학기술교과(AI포함)’ 11명(45.8%), ‘인문학교과’ 9명(37.5%), ‘예술체육교과’ 3명(12.5%), ‘수리과학교과’ 1명(4.2%)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3> 음악중심 융합수업에 대한 우선적 교과영역

구분	전체	표본 수	수리과학	공학기술	인문학	예술체육	기타	유의차 검증
		24	N(%)	N(%)	N(%)	N(%)	N(%)	
			1(4.2)	11(45.8)	9(37.5)	3(12.5)	0(0.0)	
연령	20대	7	1(14.3)	3(42.9)	3(42.9)	0(0.0)	0(0.0)	$x^2=6.989$ $p=.638$
	30대	13	0(0.0)	6(46.2)	4(30.8)	3(23.1)	0(0.0)	
	40대	3	0(0.0)	2(66.7)	1(33.3)	0(0.0)	0(0.0)	
	50대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학교급	중학교	18	1(5.6)	9(50.0)	5(27.8)	3(16.7)	0(0.0)	$x^2=3.421$ $p=.331$
	고등학교	6	0(0.0)	2(33.3)	4(66.7)	0(0.0)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16	1(6.3)	7(43.8)	5(31.3)	3(18.8)	0(0.0)	$x^2=4.970$ $p=.959$
	5-10년	4	0(0.0)	2(50.0)	2(50.0)	0(0.0)	0(0.0)	
	11-15년	1	0(0.0)	1(100.0)	0(0.0)	0(0.0)	0(0.0)	
	16-20년	2	0(0.0)	1(50.0)	1(50.0)	0(0.0)	0(0.0)	
	20년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1(25.0)	2(50.0)	0(0.0)	1(25.0)	0(0.0)	$x^2=7.418$ $p=.060$
	없다	20	0(0.0)	9(45.0)	9(45.0)	2(10.0)	0(0.0)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1(9.1)	5(45.5)	4(36.4)	1(9.1)	0(0.0)	$x^2=3.181$ $p=.786$
	보통	12	0(0.0)	6(50.0)	4(33.3)	2(16.7)	0(0.0)	
	낮음	1	0(0.0)	0(0.0)	1(100.0)	0(0.0)	0(0.0)	

6) 연간 음악중심 융합수업 적정 횟수

연간 1회 이상 반드시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적정 횟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2회’ 12명(50%), ‘1회’ 6명(25%), ‘3회’ 4명(16.7%), ‘4회 이상’ 2명(8.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하지 못했거나 관심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업의 필요성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음악중심 융합수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34> 연간 1회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설계일 경우, 적합한 횟수

구분	전체	표본 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24	6(25.0)	12(50.0)	4(16.7)	2(8.3)	0(0.0)	
연령	20대	7	1(14.3)	4(57.1)	1(14.3)	1(14.3)	0(0.0)	$x^2=6.945$ $p=.643$
	30대	13	5(38.5)	4(30.8)	3(23.1)	1(7.7)	0(0.0)	
	40대	3	0(0.0)	3(100.0)	0(0.0)	0(0.0)	0(0.0)	
	50대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학교급	중학교	18	5(27.8)	7(38.9)	4(22.2)	2(11.1)	0(0.0)	$x^2=4.000$ $p=.261$
	고등학교	6	1(16.7)	5(83.3)	0(0.0)	0(0.0)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16	3(18.8)	7(43.8)	4(25.0)	2(12.5)	0(0.0)	$x^2=10.875$ $p=.540$
	5-10년	4	3(75.0)	1(25.0)	0(0.0)	0(0.0)	0(0.0)	
	11-15년	1	0(0.0)	1(100.0)	0(0.0)	0(0.0)	0(0.0)	
	16-20년	2	0(0.0)	2(100.0)	0(0.0)	0(0.0)	0(0.0)	
	20년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1(25.0)	2(50.0)	1(25.0)	0(0.0)	0(0.0)	$x^2=0.600$ $p=.896$
	없다	20	5(25.0)	10(50.0)	3(15.0)	2(10.0)	0(0.0)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4(36.4)	5(45.5)	2(18.2)	0(0.0)	0(0.0)	$x^2=13.045^*$ $p=.042$
	보통	12	2(16.7)	7(58.3)	2(16.7)	1(8.3)	0(0.0)	
	낮음	1	0(0.0)	0(0.0)	0(0.0)	1(100.0)	0(0.0)	

* $p < .05$

7) 교육과정 편성시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우선순위

이 문항은 향후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해야 할 때, 교육과정 편성 시 우선순위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하였다.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 교차분석 결과, ‘음악교과 수업’ 18명(75%)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양한 교과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융합수업의 특성으로

볼 때 정규 음악교과 시수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시간)’ 3명(12.5%), ‘동아리’ 3명(12.5%)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학교급’에서 유의한 차이($p < .01$)가 나타났다.

<표 35>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의 교육과정 편성

구분	전체	표본 수	음악교과 수업	창체시간	동아리	방과후	기타	유의차 검증
		24	N(%)	N(%)	N(%)	N(%)	N(%)	
		7	5(71.4)	2(28.6)	0(0.0)	0(0.0)	0(0.0)	
연령	20대	7	5(71.4)	2(28.6)	0(0.0)	0(0.0)	0(0.0)	$x^2=11.419$ $p=.076$
	30대	13	11(84.6)	1(7.7)	1(7.7)	0(0.0)	0(0.0)	
	40대	3	2(66.7)	0(0.0)	1(33.3)	0(0.0)	0(0.0)	
	50대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학교급	중학교	18	16(88.9)	2(11.1)	0(0.0)	0(0.0)	0(0.0)	$x^2=10.963^{**}$ $p=.004$
	고등학교	6	2(33.3)	1(16.7)	3(50.0)	0(0.0)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16	12(75.0)	3(18.8)	1(6.3)	0(0.0)	0(0.0)	$x^2=12.333$ $p=.137$
	5-10년	4	4(100.0)	0(0.0)	0(0.0)	0(0.0)	0(0.0)	
	11-15년	1	1(100.0)	0(0.0)	0(0.0)	0(0.0)	0(0.0)	
	16-20년	2	1(50.0)	0(0.0)	1(50.0)	0(0.0)	0(0.0)	
	20년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4(100.0)	0(0.0)	0(0.0)	0(0.0)	0(0.0)	$x^2=1.600$ $p=.449$
	없다	20	14(70.0)	3(15.0)	3(15.0)	0(0.0)	0(0.0)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8(72.7)	2(18.2)	1(9.1)	0(0.0)	0(0.0)	$x^2=1.061$ $p=.900$
	보통	12	9(75.0)	1(8.3)	2(16.7)	0(0.0)	0(0.0)	
	낮음	1	1(100.0)	0(0.0)	0(0.0)	0(0.0)	0(0.0)	

** $p < .01$

8)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우선순위

<표 36>은 향후 행·재정적, 제도적 변화가 생긴다면 융합수업 운영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의 응답 현황에 대한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 교차분석 표로 빈도분석 결과, ‘융합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충’ 8명(33.3%), ‘융합교육 참여 교사의 교무 업무 경감’ 7명(29.2%), ‘성과급,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5명(20.8%), ‘융합교육을 위한 법제화된 시수 확보’ 4명(16.7%) 순으로 조사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6> 향후 음악중심 융합수업에 우선시 되는 행·재정적, 제도

구분	전체	표본 수	시수 확보	시설 확충	업무 경감	인센티브 제공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24	4(16.7)	8(33.3)	7(29.2)	5(20.8)	0(0.0)	
연령	20대	7	2(28.6)	1(14.3)	2(28.6)	2(28.6)	0(0.0)	$x^2=10.399$ $p=.319$
	30대	13	2(15.4)	3(23.1)	5(38.5)	3(23.1)	0(0.0)	
	40대	3	0(0.0)	3(100.0)	0(0.0)	0(0.0)	0(0.0)	
	50대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학교급	중학교	18	4(22.2)	4(22.2)	6(33.3)	4(22.2)	0(0.0)	$x^2=4.495$ $p=.213$
	고등학교	6	0(0.0)	4(66.7)	1(16.7)	1(16.7)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16	3(18.8)	2(12.5)	6(37.5)	5(31.3)	0(0.0)	$x^2=17.946$ $p=.117$
	5-10년	4	0(0.0)	3(75.0)	1(25.0)	0(0.0)	0(0.0)	
	11-15년	1	1(100.0)	0(0.0)	0(0.0)	0(0.0)	0(0.0)	
	16-20년	2	0(0.0)	2(100.0)	0(0.0)	0(0.0)	0(0.0)	
	20년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1(25.0)	1(25.0)	2(50.0)	0(0.0)	0(0.0)	$x^2=2.014$ $p=.569$
	없다	20	3(15.0)	7(35.0)	5(25.0)	5(25.0)	0(0.0)	
융합	높음	11	1(9.1)	4(36.4)	5(45.5)	1(9.1)	0(0.0)	$x^2=8.681$

교육에 대한 관심도	보통	12	2(16.7)	4(33.3)	2(16.7)	4(33.3)	0(0.0)	$p=.192$
	낮음	1	1(100.0)	0(0.0)	0(0.0)	0(0.0)	0(0.0)	

9) 이 외에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시 중요한 부분

위 8번 문항의 질문 외에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응답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융합교육 관련 자료·교재의 개발 및 공유’ 17명(7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 3명(12.5%), ‘학부모의 이해 및 인식 제고’ 2명(8.3%), ‘운영 결과 관련 홍보물 배포 늘림’ 1명(4.2%), ‘기타’ 1명(4.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수행평가 횟수 제한, 1시수 단위인데 한 학기에 4번의 수행평가를 해야 하므로 다른 창의적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의 응답이 있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 학교급, 교육경력,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7> 위의 질문 외에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에 중요 부분

구분	전체	표본 수	자료 공유	학부모 인식 제고	교사 연구회 지원	결과물 배포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24	17(70.8)	2(8.3)	3(12.5)	1(4.2)	1(4.2)	
연령	20대	7	5(71.4)	0(0.0)	1(14.3)	0(0.0)	1(14.3)	$x^2=16.407$ $p=.173$
	30대	13	10(76.9)	1(7.7)	1(7.7)	1(7.7)	0(0.0)	
	40대	3	2(66.7)	0(0.0)	1(33.3)	0(0.0)	0(0.0)	
	50대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학교급	중학교	18	14(77.8)	1(5.6)	2(11.1)	0(0.0)	1(5.6)	$x^2=4.601$ $p=.331$
	고등학교	6	3(50.0)	1(16.7)	1(16.7)	1(16.7)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16	11(68.8)	1(6.3)	2(12.5)	1(6.3)	1(6.3)	$x^2=16.191$ $p=.440$

	5-10년	4	4(100.0)	0(0.0)	0(0.0)	0(0.0)	0(0.0)	
	11-15년	1	1(100.0)	0(0.0)	0(0.0)	0(0.0)	0(0.0)	
	16-20년	2	1(50.0)	0(0.0)	1(50.0)	0(0.0)	0(0.0)	
	20년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3(75.0)	1(25.0)	0(0.0)	0(0.0)	0(0.0)	$x^2=20612$ $p=.625$
	없다	20	14(70.0)	1(5.0)	3(15.0)	1(5.0)	1(5.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8(72.7)	1(9.1)	0(0.0)	1(9.1)	1(9.1)	$x^2=5.610$ $p=.691$
	보통	12	8(66.7)	1(8.3)	3(25.0)	0(0.0)	0(0.0)	
	낮음	1	1(100.0)	0(0.0)	0(0.0)	0(0.0)	0(0.0)	

10) 음악중심 융합수업 관련 연수 중 관심 분야

이 문항은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해당 수업에 관련된 연수를 받는다고 가정 했을 때 가장 관심있는 교과 영역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하였다. <표 38>은 이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교차분석 표이다. 그 결과 ‘공학기술교과(AI 포함)’ 14명(58.3%), ‘인문학교과’ 5명(20.8%), ‘예술체육교과’ 4명(16.7%), ‘수리과학교과’ 1명(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8>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구분	전체	표본 수	수리과학	공학기술	인문학	예술체육	기타	유의차 검증
		24	N(%)	N(%)	N(%)	N(%)	N(%)	
		24	1(4.2)	14(58.3)	5(20.8)	4(16.7)	0(0.0)	
연령	20대	7	0(0.0)	4(57.1)	2(28.6)	1(14.3)	0(0.0)	$x^2=7.400$ $p=.596$
	30대	13	1(7.7)	7(53.8)	2(15.4)	3(23.1)	0(0.0)	
	40대	3	0(0.0)	3(100.0)	0(0.0)	0(0.0)	0(0.0)	
	50대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학교급	중 학교	18	1(5.6)	11(61.1)	3(16.7)	3(16.7)	0(0.0)	$x^2=1.029$ $p=.794$
	고등 학교	6	0(0.0)	3(50.0)	2(33.3)	1(16.7)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16	0(0.0)	8(50.0)	4(25.0)	4(25.0)	0(0.0)	$x^2=13.457$ $p=.337$
	5- 10년	4	1(25.0)	3(75.0)	0(0.0)	0(0.0)	0(0.0)	
	11- 15년	1	0(0.0)	1(100.0)	0(0.0)	0(0.0)	0(0.0)	
	16- 20년	2	0(0.0)	2(100.0)	0(0.0)	0(0.0)	0(0.0)	
	20년 이상	1	0(0.0)	0(0.0)	1(100.0)	0(0.0)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0(0.0)	3(75.0)	0(0.0)	1(25.0)	0(0.0)	$x^2=1.629$ $p=.653$
	없다	20	1(5.0)	11(55.0)	5(25.0)	3(15.0)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0(0.0)	7(63.6)	2(18.2)	2(18.2)	0(0.0)	$x^2=4.964$ $p=.548$
	보통	12	1(8.3)	7(58.3)	2(16.7)	2(16.7)	0(0.0)	
	낮음	1	0(0.0)	0(0.0)	1(100.0)	0(0.0)	0(0.0)	

11) 음악중심 융합수업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학습 형태

음악중심 융합수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학습 형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창의·사고력 증진을 위한 생활화 학습’ 13명(54.2%)으로 가장 높았고 ‘배경지식 기반의 토론학습’ 4명(16.7%), ‘체험활동(공연 관람 등)’ 4명(16.7%), ‘실기(가창, 악기 연주 등)위주의 활동’ 3명(12.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융합교육 관련 연수경험에서 유의한 차이($p < .05$)가 나타났다.

<표 39>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학습 형태

구분	전체	표본 수	실기 위주 활동	체험 활동	토론 학습	생활화 학습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24	3(12.5)	4(16.7)	4(16.7)	13(54.2)	0(0.0)	
연령	20대	7	0(0.0)	2(28.6)	1(14.3)	4(57.1)	0(0.0)	$x^2=9.669$

	30대	13	2(15.4)	1(7.7)	3(23.1)	7(53.8)	0(0.0)	$p=.378$
	40대	3	1(33.3)	0(0.0)	0(0.0)	2(66.7)	0(0.0)	
	50대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학교급	중학교	18	3(16.7)	2(11.1)	3(16.7)	10(55.6)	0(0.0)	$x^2=2.395$ $p=.501$
	고등학교	6	0(0.0)	2(33.3)	1(16.7)	3(50.0)	0(0.0)	
교육경력	5년 미만	16	1(6.3)	3(18.8)	4(25.0)	8(50.0)	0(0.0)	$x^2=19.567$ $p=.076$
	5-10년	4	0(0.0)	0(0.0)	0(0.0)	4(100.0)	0(0.0)	
	11-15년	1	1(100.0)	0(0.0)	0(0.0)	0(0.0)	0(0.0)	
	16-20년	2	1(50.0)	0(0.0)	0(0.0)	1(50.0)	0(0.0)	
	20년 이상	1	0(0.0)	1(100.0)	0(0.0)	0(0.0)	0(0.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4	2(50.0)	1(25.0)	1(25.0)	0(0.0)	0(0.0)	$x^2=8.400^*$ $p=.038$
	없다	20	1(5.0)	3(15.0)	3(15.0)	13(65.0)	0(0.0)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11	1(9.1)	2(18.2)	3(27.3)	5(45.5)	0(0.0)	$x^2=2.565$ $p=.861$
	보통	12	2(16.7)	2(16.7)	1(8.3)	7(58.3)	0(0.0)	
	낮음	1	0(0.0)	0(0.0)	0(0.0)	1(100.0)	0(0.0)	

* $p < .05$

12) 음악교과의 AI관련 융합교육

12번 문항은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교사에게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AI관련 융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음악교과에서 AI관련 융합수업을 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한 응답자 56명의 교사들에 대한 인식 현황을 빈도분석과 인구통계학적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AI 관련 기기 활용 및 운영 방법’ 21명(37.5%)으로 가장 높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교육)에 대한 음악 활용’ 17명(30.4%), ‘AI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음악적 논쟁’ 12명(21.4%), ‘저작권 및 윤리교육과 음악작품’ 6명(1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0> AI 관련 음악 융합수업 주요 요소

구분	전체	표본 수	저작권 윤리교육	리터러시 교육	AI 관련 사회적 이슈	AI 관련 기기 활용 능력	기타	유의차 검증
			N(%)	N(%)	N(%)	N(%)	N(%)	
		56	6(10.7)	17(30.4)	12(21.4)	21(37.5)	0(0.0)	
성별	남 교사	7	0(0.0)	2(28.6)	3(42.9)	2(28.6)	0(0.0)	$x^2=2.750$ $p=.432$
	여 교사	49	6(12.2)	15(30.6)	9(18.4)	19(38.8)	0(0.0)	
연령	20대	8	0(0.0)	2(25.0)	4(50.0)	2(25.0)	0(0.0)	$x^2=11.857$ $p=.222$
	30대	39	4(10.3)	15(38.5)	6(15.4)	14(35.9)	0(0.0)	
	40대	6	1(16.7)	0(0.0)	1(16.7)	4(66.7)	0(0.0)	
	50대 이상	3	1(33.3)	0(0.0)	1(33.3)	1(33.3)	0(0.0)	
학교급	중 학교	39	3(7.7)	10(25.6)	11(28.2)	15(38.5)	0(0.0)	$x^2=4.821$ $p=.185$
	고등 학교	17	3(17.6)	7(41.2)	1(5.9)	6(35.3)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23	1(4.3)	9(39.1)	5(21.7)	8(34.8)	0(0.0)	$x^2=10.957$ $p=.533$
	5- 10년	24	2(8.3)	6(25.0)	6(25.0)	10(41.7)	0(0.0)	
	11- 15년	4	1(25.0)	2(50.0)	0(0.0)	1(25.0)	0(0.0)	
	16- 20년	2	1(50.0)	0(0.0)	0(0.0)	1(50.0)	0(0.0)	
	20년 이상	3	1(33.3)	0(0.0)	1(33.3)	1(33.3)	0(0.0)	
융합 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9.4)	8(25.0)	7(21.9)	14(43.8)	0(0.0)	$x^2=1.616$ $p=.656$
	없다	24	3(12.5)	9(37.5)	5(20.8)	7(29.2)	0(0.0)	
융합 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10.3)	6(20.7)	8(27.6)	12(41.4)	0(0.0)	$x^2=3.165$ $p=.367$
	없다	27	3(11.1)	11(40.7)	4(14.8)	9(33.3)	0(0.0)	
융합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3(9.1)	12(36.4)	5(15.2)	13(39.4)	0(0.0)	$x^2=4.729$ $p=.579$
	보통	21	3(14.3)	4(19.0)	6(28.6)	8(38.1)	0(0.0)	
	낮음	2	0(0.0)	1(50.0)	1(50.0)	0(0.0)	0(0.0)	

4.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의 문제점

설문 문항의 네 번째 영역은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적용의 어려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할 부분, 융합교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현상의 세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세부 영역에 대해 다섯 가지 질문을 구성하여 리커트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질문의 자료 분석은 빈도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교차 분석하였다.

1) 음악중심 융합교육 적용의 어려움

(1)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인한 어려움’ 문항의 평균값은 3.46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46	0.88		
성별	남교사	7	3.57	0.53	t=0.815	p=.429
	여교사	49	3.37	1.03		
연령대	20대	8	3.50	1.20	F=0.125	p=.945
	30대	39	3.36	1.04		
	40대	6	3.33	0.52		
	50대 이상	3	3.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3.44	0.99	t=0.492	p=.625
	고등학교	17	3.29	0.99		
교육경력	5년 미만	23	3.57	0.95	F=1.150	p=.344
	5-10년	24	3.13	1.08		
	11-15년	4	4.00	0.82		
	16-20년	2	3.00	0.00		
	20년 이상	3	3.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28	0.96	t=-0.979	p=.332
	없다	24	3.54	1.02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31	0.89	t=-0.646	p=.521
	없다	27	3.48	1.09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3.30	0.95	F=0.583	p=.562
	보통	21	3.48	1.03		
	낮음	2	4.00	1.41		

(2) ‘수업시수 확보의 어려움’ 문항의 평균값은 4.06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 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음악중심 융합교육 적용의 수업시수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06	0.66		
성별	남교사	7	4.14	0.69	t=0.583	p=.562
	여교사	49	3.96	0.79		
연령대	20대	8	4.25	0.71	F=1.363	p=.264
	30대	39	3.85	0.81		
	40대	6	4.33	0.52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05	0.83	t=1.012	p=.316
	고등학교	17	3.82	0.64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04	0.71	F=0.513	p=.726
	5-10년	24	3.83	0.87		
	11-15년	4	4.25	0.96		
	16-20년	2	4.00	0.00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94	0.88	t=-0.495	p=.623
	없다	24	4.04	0.62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93	0.84	t=-0.508	p=.613
	없다	27	4.04	0.71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3.97	0.88	F=0.010	p=.990
	보통	21	4.00	0.63		
	낮음	2	4.00	0.00		

(3)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문항의 평균값은 3.92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 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음악중심 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92	0.85		
성별	남교사	7	3.71	0.76	t=-0.729	p=.469
	여교사	49	3.96	0.84		
연령대	20대	8	3.50	0.93	F=0.825	p=.486
	30대	39	4.00	0.83		
	40대	6	4.00	0.63		
	50대 이상	3	4.00	1.00		
학교급	중학교	39	3.92	0.84	t=-0.075	p=.941
	고등학교	17	3.94	0.83		
교육경력	5년 미만	23	3.96	0.82	F=0.045	p=.996
	5-10년	24	3.88	0.80		
	11-15년	4	4.00	1.41		
	16-20년	2	4.00	0.00		
	20년 이상	3	4.00	1.00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88	0.91	t=-0.574	p=.568
	없다	24	4.00	0.72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93	0.88	t=0.023	p=.982
	없다	27	3.93	0.78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06	0.83	F=1.136	p=.329
	보통	21	3.71	0.78		
	낮음	2	4.00	1.41		

(4) ‘음악과 평가의 어려움’ 문항의 평균값은 3.61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 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평가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61	0.96		
성별	남교사	7	3.29	0.95	t=-0.827	p=.412
	여교사	49	3.59	0.91		
연령대	20대	8	3.75	1.16	F=0.228	p=.876
	30대	39	3.49	0.85		
	40대	6	3.67	0.82		
	50대 이상	3	3.67	1.53		
학교급	중학교	39	3.64	0.78	t=1.088	p=.282
	고등학교	17	3.35	1.17		
교육경력	5년 미만	23	3.74	0.75	F=0.902	p=.470
	5-10년	24	3.29	0.95		
	11-15년	4	3.75	0.96		
	16-20년	2	4.00	1.41		
	20년 이상	3	3.67	1.53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38	0.94	t=-1.720	p=.091
	없다	24	3.79	0.83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59	0.91	t=0.275	p=.784
	없다	27	3.52	0.94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3.48	0.87	F=0.378	p=.687
	보통	21	3.62	1.02		
	낮음	2	4.00	0.00		

(5) ‘한 학급 내 학생들의 수준 차이로 인한 어려움’ 문항의 평균값은 3.69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여교사(4.02)가 한 학급내 학생들의 수준차이로 인하여 음악중심 융합교육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반면에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45>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학생수준 차이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69	1.08		
성별	남교사	7	3.00	1.15	t=-2.652*	p=.010
	여교사	49	4.02	0.92		
연령대	20대	8	3.50	0.93	F=2.213	p=.098
	30대	39	4.10	0.97		
	40대	6	3.50	0.55		
	50대 이상	3	3.00	1.73		
학교급	중학교	39	3.87	1.06	t=-0.236	p=.814
	고등학교	17	3.94	0.90		
교육경력	5년 미만	23	3.91	0.90	F=1.046	p=.393
	5-10년	24	4.08	1.02		
	11-15년	4	3.50	1.00		
	16-20년	2	3.50	0.71		
	20년 이상	3	3.00	1.73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88	1.10	t=-0.152	p=.879
	없다	24	3.92	0.88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93	1.07	t=0.293	p=.771
	없다	27	3.85	0.95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00	0.97	F=0.511	p=.603
	보통	21	3.76	1.00		
	낮음	2	3.50	2.12		

* $p < .05$

2)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할 부분

(1) ‘교과 융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문항의 평균값은 4.16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교육경력에서 유의한 차이 ($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11-15년 교육경력의 교사(4.75)가 현장에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정착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교과 융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융합교육 운영경험, 관련 연수경험,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46>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교사 전문성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16	0.64		
성별	남교사	7	4.00	0.82	t=-1.039	p=.303
	여교사	49	4.27	0.60		
연령대	20대	8	4.25	0.71	F=1.903	p=.141
	30대	39	4.31	0.57		
	40대	6	3.67	0.82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18	0.64	t=-0.943	p=.350
	고등학교	17	4.35	0.61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22	0.60	F=2.969*	p=.028
	5-10년	24	4.25	0.61		
	11-15년	4	4.75	0.50		
	16-20년	2	3.00	0.00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25	0.57	t=0.242	p=.810
	없다	24	4.21	0.72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21	0.68	t=-0.307	p=.760
	없다	27	4.26	0.59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33	0.65	F=1.052	p=.356
	보통	21	4.10	0.54		
	낮음	2	4.00	1.41		

* $p < .05$

(2)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에 대한 의지’ 문항의 평균값은 4.40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다양한 교수법 활용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40	0.64		
성별	남교사	7	4.29	0.49	t=-0.507	p=.614
	여교사	49	4.41	0.61		
연령대	20대	8	4.50	0.76	F=0.580	p=.631
	30대	39	4.38	0.54		
	40대	6	4.17	0.75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36	0.63	t=-0.644	p=.522
	고등학교	17	4.47	0.51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35	0.65	F=0.436	p=.782
	5-10년	24	4.42	0.50		
	11-15년	4	4.50	0.58		
	16-20년	2	4.00	1.41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44	0.50	t=0.617	p=.541
	없다	24	4.33	0.7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41	0.57	t=0.271	p=.787
	없다	27	4.37	0.63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52	0.57	F=2.029	p=.142
	보통	21	4.19	0.60		
	낮음	2	4.50	0.71		

(3) ‘음악교과 외 타 교과에 대한 지식’ 문항의 평균값은 4.02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타 교과에 대한 지식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02	0.78		
성별	남교사	7	4.00	0.82	t=-0.336	p=.738
	여교사	49	4.10	0.74		
연령대	20대	8	4.00	0.76	F=0.111	p=.953
	30대	39	4.13	0.73		
	40대	6	4.00	0.89		
	50대 이상	3	4.00	1.00		
학교급	중학교	39	4.03	0.78	t=-0.967	p=.338
	고등학교	17	4.24	0.66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09	0.67	F=1.208	p=.319
	5-10년	24	4.17	0.76		
	11-15년	4	4.25	0.96		
	16-20년	2	3.00	0.00		
	20년 이상	3	4.00	1.00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09	0.78	t=0.051	p=.959
	없다	24	4.08	0.72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00	0.80	t=-0.928	p=.358
	없다	27	4.19	0.68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21	0.78	F=1.111	p=.337
	보통	21	3.90	0.62		
	낮음	2	4.00	1.41		

(4) ‘융합교육 관련 연수 참여’ 문항의 평균값은 3.87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교육경력 및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11-15년 교육경력의 교사(4.75)와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4.12) 교사가 현장에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정착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융합교육 관련 연수 참여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융합교육 운영경험, 관련 연수 경험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49>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 참여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87	0.77		
성별	남교사	7	4.00	1.00	t=0.256	p=.799
	여교사	49	3.92	0.76		
연령대	20대	8	3.50	0.53	F=1.533	p=.217
	30대	39	4.03	0.78		
	40대	6	3.67	1.03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3.87	0.80	t=-0.819	p=.416
	고등학교	17	4.06	0.75		
교육경력	5년 미만	23	3.83	0.58	F=3.670*	p=.011
	5-10년	24	3.96	0.86		
	11-15년	4	4.75	0.50		
	16-20년	2	2.50	0.71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94	0.80	t=0.098	p=.923
	없다	24	3.92	0.78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97	0.91	t=0.363	p=.718
	없다	27	3.89	0.64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12	0.78	F=3.480*	p=.038
	보통	21	3.71	0.64		
	낮음	2	3.00	1.41		

* $p < .05$

(5)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항의 평균값은 4.21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융합교육 운영 경험 및 관련 연수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4.41) 교사와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4.45) 교사가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정착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50>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실생활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21	0.67		
성별	남교사	7	4.43	0.79	t=0.749	p=.457
	여교사	49	4.20	0.74		
연령대	20대	8	3.75	0.46	F=1.698	p=.179
	30대	39	4.31	0.77		
	40대	6	4.17	0.75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31	0.66	t=1.164	p=.250
	고등학교	17	4.06	0.90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04	0.77	F=2.491	p=.055
	5-10년	24	4.29	0.69		
	11-15년	4	5.00	0.00		
	16-20년	2	3.50	0.71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41	0.71	t=2.100*	p=.040
	없다	24	4.00	0.72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45	0.69	t=2.363*	p=.022
	없다	27	4.00	0.73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36	0.78	F=1.931	p=.155
	보통	21	4.10	0.62		
	낮음	2	3.50	0.71		

* $p < .05$

3) 융합교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1) ‘교사의 수업 및 업무 부담 증가’ 문항의 평균값은 4.30이며, 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다. 반면에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관련 연수 경험,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수업 및 업무 부담 증가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0	0.69		
성별	남교사	7	4.29	0.76	t=0.000***	p<.001
	여교사	49	4.29	0.65		
연령대	20대	8	4.25	0.46	F=0.090	p=.965
	30대	39	4.31	0.66		
	40대	6	4.17	0.98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31	0.66	t=0.379	p=.706
	고등학교	17	4.24	0.66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39	0.58	F=1.131	p=.352
	5-10년	24	4.13	0.68		
	11-15년	4	4.75	0.50		
	16-20년	2	4.00	1.41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22	0.71	t=-0.885	p=.380
	없다	24	4.38	0.58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24	0.69	t=-0.523	p=.603
	없다	27	4.33	0.62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33	0.74	F=0.410	p=.666
	보통	21	4.19	0.51		
	낮음	2	4.50	0.71		

*** $p < .001$

(2) ‘각종 공문서 및 행사 발생’ 문항의 평균값은 3.93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융합교육 운영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없는 교사(4.25)가 융합교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현상으로 각종

공문서 및 행사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융합교육 관련 연수경험,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52>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각종 공문서 및 행사 발생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93	0.88		
성별	남교사	7	3.57	0.53	t=-1.153	p=.254
	여교사	49	4.00	0.96		
연령대	20대	8	4.25	0.89	F=0.551	p=.650
	30대	39	3.95	0.97		
	40대	6	3.67	0.82		
	50대 이상	3	3.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00	0.92	t=0.655	p=.516
	고등학교	17	3.82	0.95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30	0.70	F=1.599	p=.189
	5-10년	24	3.67	1.01		
	11-15년	4	3.75	1.26		
	16-20년	2	4.00	1.41		
	20년 이상	3	3.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72	1.02	t=-2.335*	p=.023
	없다	24	4.25	0.68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79	0.90	t=-1.296	p=.200
	없다	27	4.11	0.93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3.82	1.04	F=0.950	p=.393
	보통	21	4.10	0.70		
	낮음	2	4.50	0.71		

* $p < .05$

(3) ‘학생의 수업 부담(과제 및 평가 등) 가중’ 문항의 평균값은 3.58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학생의 수업 부담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58	0.95		
성별	남교사	7	3.57	0.53	t=-0.051	p=.960
	여교사	49	3.59	1.04		
연령대	20대	8	3.75	1.28	F=0.270	p=.846
	30대	39	3.62	0.94		
	40대	6	3.33	1.21		
	50대 이상	3	3.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3.69	1.03	t=1.188	p=.240
	고등학교	17	3.35	0.86		
교육경력	5년 미만	23	3.65	1.11	F=0.192	p=.941
	5-10년	24	3.63	0.82		
	11-15년	4	3.25	1.71		
	16-20년	2	3.50	0.71		
	20년 이상	3	3.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50	0.95	t=-0.779	p=.439
	없다	24	3.71	1.04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59	1.02	t=-0.024	p=.981
	없다	27	3.59	0.97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3.45	1.06	F=1.345	p=.269
	보통	21	3.71	0.85		
	낮음	2	4.50	0.71		

(4) ‘교육과정 개편,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문항의 평균값은 4.09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교육과정 개편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09	0.65		
성별	남교사	7	4.00	0.58	t=-0.375	p=.709
	여교사	49	4.10	0.68		
연령대	20대	8	4.13	0.64	F=0.063	p=.979
	30대	39	4.10	0.68		
	40대	6	4.00	0.89		

	50대 이상	3	4.00	0.00		
학교급	중학교	39	4.13	0.70	t=0.657	p=.514
	고등학교	17	4.00	0.61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09	0.67	F=0.053	p=.995
	5-10년	24	4.13	0.68		
	11-15년	4	4.00	0.82		
	16-20년	2	4.00	1.41		
	20년 이상	3	4.00	0.00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00	0.67	t=-1.158	p=.252
	없다	24	4.21	0.66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97	0.68	t=-1.451	p=.153
	없다	27	4.22	0.64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09	0.72	F=0.410	p=.666
	보통	21	4.05	0.59		
	낮음	2	4.50	0.71		

(5) ‘융합교육에 맞는 평가 체계에 대한 혼란’ 문항의 평균값은 4.09이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성별 및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반면에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과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55> 융합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평가 체계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09	0.82		
성별	남교사	7	3.57	1.13	t=-2.092*	p=.041
	여교사	49	4.22	0.71		
연령대	20대	8	4.50	0.53	F=1.793	p=.160
	30대	39	4.10	0.82		
	40대	6	4.33	0.52		
	50대 이상	3	3.33	1.15		
학교급	중학교	39	4.31	0.66	t=2.451	p=.017
	고등학교	17	3.76	0.97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35	0.57	F=1.430	p=.238
	5-10년	24	4.04	0.81		
	11-15년	4	4.00	1.41		
	16-20년	2	4.50	0.71		

	20년 이상	3	3.33	1.15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94	0.88	t=-2.316*	p=.024
	없다	24	4.42	0.58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07	0.88	t=-0.717	p=.477
	없다	27	4.22	0.70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18	0.88	F=0.382	p=.684
	보통	21	4.05	0.67		
	낮음	2	4.50	0.71		

* $p < .05$

5.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

설문 문항의 다섯 번째 영역은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음악중심 융합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의 세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세부 영역에 대해 다섯 가지 질문을 구성하여 리커트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질문의 자료 분석은 빈도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교차 분석하였다.

1) 음악중심 융합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

(1) ‘창의적 사고력’ 문항의 평균값은 4.52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창의적 사고력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52	0.47		
성별	남교사	7	4.57	0.53	t=0.119	p=.843
	여교사	49	4.53	0.50		

연령대	20대	8	4.38	0.52	F=0.804	p=.497
	30대	39	4.59	0.50		
	40대	6	4.33	0.52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54	0.51	t=0.061	p=.951
	고등학교	17	4.53	0.51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39	0.50	F=2.338	p=.068
	5-10년	24	4.63	0.49		
	11-15년	4	5.00	0.00		
	16-20년	2	4.00	0.00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59	0.50	t=0.996	p=.323
	없다	24	4.46	0.51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59	0.50	t=0.775	p=.442
	없다	27	4.48	0.51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67	0.48	F=3.029	p=.057
	보통	21	4.33	0.48		
	낮음	2	4.50	0.71		

(2) ‘실생활 적용력’ 문항의 평균값은 4.36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실생활 적용력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6	0.73		
성별	남교사	7	4.29	0.76	t=-0.298	p=.767
	여교사	49	4.37	0.67		
연령대	20대	8	4.25	0.71	F=0.271	p=.846
	30대	39	4.36	0.67		
	40대	6	4.33	0.82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46	0.68	t=1.795	p=.078
	고등학교	17	4.12	0.60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26	0.69	F=0.491	p=.742
	5-10년	24	4.42	0.58		
	11-15년	4	4.50	1.00		

	16-20년	2	4.00	1.41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41	0.67	t=0.628	p=.533
	없다	24	4.29	0.69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41	0.68	t=0.650	p=.518
	없다	27	4.30	0.67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39	0.70	F=0.207	p=.814
	보통	21	4.29	0.64		
	낮음	2	4.50	0.71		

(3) ‘감성적 체험’ 문항의 평균값은 4.32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감성적 체험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2	0.82		
성별	남교사	7	4.29	0.76	t=-0.062	p=.951
	여교사	49	4.31	0.82		
연령대	20대	8	4.13	1.36	F=0.395	p=.757
	30대	39	4.33	0.66		
	40대	6	4.17	0.98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31	0.86	t=0.057	p=.954
	고등학교	17	4.29	0.69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22	0.95	F=0.338	p=.851
	5-10년	24	4.33	0.70		
	11-15년	4	4.50	0.58		
	16-20년	2	4.00	1.41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44	0.67	t=1.448	p=.153
	없다	24	4.13	0.95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41	0.68	t=1.060	p=.294
	없다	27	4.19	0.92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48	0.67	F=2.506	p=.091
	보통	21	4.00	0.95		
	낮음	2	4.50	0.71		

(4) ‘예술성 개발’ 문항의 평균값은 4.21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 ($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교사(4.50)가 음악중심 융합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으로 예술성 개발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59>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예술성 개발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21	0.74		
성별	남교사	7	4.29	0.49	t=0.197	p=.845
	여교사	49	4.22	0.80		
연령대	20대	8	4.13	1.13	F=0.299	p=.826
	30대	39	4.28	0.69		
	40대	6	4.00	0.89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23	0.81	t=-0.020	p=.984
	고등학교	17	4.24	0.66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22	0.85	F=0.585	p=.675
	5-10년	24	4.25	0.74		
	11-15년	4	4.50	0.58		
	16-20년	2	3.50	0.71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38	0.66	t=1.644	p=.106
	없다	24	4.04	0.86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34	0.67	t=1.149	p=.255
	없다	27	4.11	0.85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45	0.62	F=4.598*	p=.014
	보통	21	3.86	0.85		
	낮음	2	4.50	0.71		

* $p < .05$

(5) ‘타 교과와의 연계’ 문항의 평균값은 4.23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음악중심 융합교육 강조점: 타 교과와의 연계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23	0.62		
성별	남교사	7	4.00	0.82	t=-1.450	p=.153
	여교사	49	4.33	0.52		
연령대	20대	8	4.25	0.46	F=0.613	p=.610
	30대	39	4.33	0.53		
	40대	6	4.00	0.89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31	0.52	t=0.439	p=.662
	고등학교	17	4.24	0.66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35	0.49	F=1.059	p=.387
	5-10년	24	4.29	0.55		
	11-15년	4	4.25	0.96		
	16-20년	2	3.50	0.71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31	0.59	t=0.408	p=.685
	없다	24	4.25	0.53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28	0.59	t=-0.135	p=.893
	없다	27	4.30	0.54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30	0.59	F=0.229	p=.796
	보통	21	4.24	0.54		
	낮음	2	4.50	0.71		

2)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

(1)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재량권 확보’ 문항의 평균값은 4.33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교육경력에서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11-15년 교육경력의 교사(5.00)가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개선을 위해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융합교육 운영경험, 관련 연수 경험 및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개선과 교사의 재량권 확보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3	0.52		
성별	남교사	7	4.57	0.53	t=0.895	p=.375
	여교사	49	4.35	0.63		
연령대	20대	8	4.25	0.46	F=1.201	p=.319
	30대	39	4.44	0.60		
	40대	6	4.00	0.89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41	0.59	t=0.641	p=.524
	고등학교	17	4.29	0.69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35	0.49	F=4.617**	p=.003
	5-10년	24	4.38	0.65		
	11-15년	4	5.00	0.00		
	16-20년	2	3.00	0.00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44	0.62	t=0.869	p=.388
	없다	24	4.29	0.62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48	0.63	t=1.359	p=.180
	없다	27	4.26	0.59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52	0.62	F=2.237	p=.117
	보통	21	4.19	0.60		
	낮음	2	4.00	0.00		

** $p < .01$

(2)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문항의 평균값은 4.39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여교사(4.49)가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개선을 위해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연령대, 학교급, 융합교육 운영경험, 관련 연수 경험 및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62>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9	0.65		
성별	남교사	7	4.00	0.82	t=-2.085*	p=.042
	여교사	49	4.49	0.54		
연령대	20대	8	4.38	0.52	F=0.130	p=.942
	30대	39	4.46	0.60		
	40대	6	4.33	0.82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49	0.60	t=1.112	p=.271
	고등학교	17	4.29	0.59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43	0.51	F=0.346	p=.846
	5-10년	24	4.38	0.71		
	11-15년	4	4.75	0.50		
	16-20년	2	4.50	0.71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41	0.67	t=-0.320	p=.751
	없다	24	4.46	0.51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48	0.63	t=0.699	p=.488
	없다	27	4.37	0.56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42	0.61	F=0.571	p=.569
	보통	21	4.48	0.51		
	낮음	2	4.00	1.41		

* $p < .05$

(3) ‘융합교육을 위한 법제화된 시수 확보’ 문항의 평균값은 4.02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법제화된 시수 확보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02	0.92		
성별	남교사	7	4.29	0.76	t=1.110	p=.272
	여교사	49	3.88	0.93		

연령대	20대	8	4.25	0.71	F=0.942	p=.427
	30대	39	3.79	0.92		
	40대	6	4.17	1.17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03	0.93	t=1.212	p=.231
	고등학교	17	3.71	0.85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13	0.76	F=1.174	p=.333
	5-10년	24	3.67	0.96		
	11-15년	4	4.25	0.96		
	16-20년	2	3.50	2.12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75	0.95	t=-1.723	p=.091
	없다	24	4.17	0.82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83	0.93	t=-0.857	p=.395
	없다	27	4.04	0.90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3.94	0.97	F=0.450	p=.640
	보통	21	3.86	0.85		
	낮음	2	4.50	0.71		

(4) ‘수업 준비를 위한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문항의 평균값은 4.35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5	0.75		
성별	남교사	7	4.71	0.49	t=1.309	p=.196
	여교사	49	4.29	0.84		
연령대	20대	8	3.88	1.36	F=1.321	p=.277
	30대	39	4.44	0.68		
	40대	6	4.17	0.75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36	0.90	t=0.271	p=.787
	고등학교	17	4.29	0.59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26	0.96	F=0.785	p=.541
	5-10년	24	4.42	0.65		

	11-15년	4	4.50	1.00		
	16-20년	2	3.50	0.71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34	0.75	t=0.047	p=.963
	없다	24	4.33	0.92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41	0.68	t=0.706	p=.483
	없다	27	4.26	0.94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48	0.67	F=2.681	p=.078
	보통	21	4.05	0.97		
	낮음	2	5.00	0.00		

(5) ‘학생, 학부모의 이해 및 인식 제고’ 문항의 평균값은 4.16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학생, 학부모의 인식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16	0.91		
성별	남교사	7	4.00	1.00	t=-0.507	p=.614
	여교사	49	4.18	0.88		
연령대	20대	8	3.88	1.13	F=0.375	p=.771
	30대	39	4.23	0.84		
	40대	6	4.17	0.98		
	50대 이상	3	4.00	1.00		
학교급	중학교	39	4.15	0.90	t=-0.087	p=.931
	고등학교	17	4.18	0.88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09	0.95	F=0.141	p=.966
	5-10년	24	4.25	0.85		
	11-15년	4	4.25	0.96		
	16-20년	2	4.00	1.41		
	20년 이상	3	4.00	1.00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31	0.86	t=1.490	p=.142
	없다	24	3.96	0.91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34	0.81	t=1.629	p=.109
	없다	27	3.96	0.94		
융합교육에 대한	높음	33	4.12	0.86	F=0.924	p=.403

관심도	보통	21	4.14	0.96		
	낮음	2	5.00	0.00		

3)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

(1) ‘동료 장학 및 컨설팅 장학’ 문항의 평균값은 3.94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동료 장학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94	0.85		
성별	남교사	7	4.00	1.15	t=0.179	p=.859
	여교사	49	3.94	0.80		
연령대	20대	8	3.75	0.71	F=0.912	p=.442
	30대	39	3.95	0.86		
	40대	6	3.83	0.98		
	50대 이상	3	4.67	0.58		
학교급	중학교	39	4.00	0.86	t=0.719	p=.475
	고등학교	17	3.82	0.81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04	0.71	F=1.674	p=.170
	5-10년	24	3.79	0.93		
	11-15년	4	4.25	0.96		
	16-20년	2	3.00	0.00		
	20년 이상	3	4.67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94	0.95	t=-0.091	p=.928
	없다	24	3.96	0.69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03	0.94	t=0.810	p=.421
	없다	27	3.85	0.72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03	0.85	F=0.556	p=.577
	보통	21	3.86	0.73		
	낮음	2	3.50	2.12		

(2) ‘교재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문항의 평균값은 4.38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교재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38	0.72		
성별	남교사	7	4.00	0.82	t=-1.967	p=.054
	여교사	49	4.51	0.62		
연령대	20대	8	4.25	0.89	F=0.318	p=.813
	30대	39	4.49	0.64		
	40대	6	4.50	0.55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51	0.60	t=1.146	p=.257
	고등학교	17	4.29	0.77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43	0.66	F=0.146	p=.964
	5-10년	24	4.50	0.66		
	11-15년	4	4.25	0.96		
	16-20년	2	4.50	0.71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50	0.67	t=0.700	p=.487
	없다	24	4.38	0.65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52	0.69	t=0.832	p=.409
	없다	27	4.37	0.63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52	0.62	F=0.736	p=.484
	보통	21	4.38	0.67		
	낮음	2	4.00	1.41		

(3) ‘성과급,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문항의 평균값은 4.12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4.12	0.84		
성별	남교사	7	4.14	0.69	t=0.000	p=1.000
	여교사	49	4.14	0.89		
연령대	20대	8	3.75	0.89	F=1.092	p=.361
	30대	39	4.26	0.82		
	40대	6	3.83	1.17		
	50대 이상	3	4.33	0.58		
학교급	중학교	39	4.15	0.93	t=0.143	p=.887
	고등학교	17	4.12	0.70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09	0.85	F=1.492	p=.218
	5-10년	24	4.17	0.87		
	11-15년	4	4.75	0.50		
	16-20년	2	3.00	1.41		
	20년 이상	3	4.33	0.58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13	0.87	t=-0.177	p=.860
	없다	24	4.17	0.87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17	0.89	t=0.264	p=.793
	없다	27	4.11	0.85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24	0.87	F=0.901	p=.412
	보통	21	3.95	0.86		
	낮음	2	4.50	0.71		

(4) ‘국내, 해외 연수 참여 기회 확대’ 문항의 평균값은 3.99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범위에서 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운영 경험,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유의한 차이($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연수 참여 기회 확대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99	0.91		
성별	남교사	7	4.14	0.69	t=0.154	p=.878
	여교사	49	4.08	1.02		
연령대	20대	8	3.88	0.83	F=0.371	p=.774

	30대	39	4.18	1.00		
	40대	6	3.83	1.17		
	50대 이상	3	4.00	1.00		
학교급	중학교	39	4.18	0.91	t=1.047	p=.300
	고등학교	17	3.88	1.11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04	0.88	F=1.596	p=.190
	5-10년	24	4.25	1.03		
	11-15년	4	4.25	0.96		
	16-20년	2	2.50	0.71		
	20년 이상	3	4.00	1.00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4.16	1.02	t=0.588	p=.559
	없다	24	4.00	0.93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4.31	0.85	t=1.789	p=.079
	없다	27	3.85	1.06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4.12	1.05	F=0.043	p=.958
	보통	21	4.05	0.92		
	낮음	2	4.00	0.00		

(5) ‘융합교육 전담교사 양성’ 문항의 평균값은 3.46이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교육경력에서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5년 미만 교육경력의 교사(4.13)가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융합교육 전담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학교급, 융합교육 운영 경험, 관련 연수 경험 및 관심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표 70>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융합교육 전담 교사 양성

구분	전체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유의차 검증	
		56	3.46	1.16		
성별	남교사	7	3.43	1.40	t=-0.530	p=.598
	여교사	49	3.67	1.11		
연령대	20대	8	3.63	0.74	F=0.734	p=.536
	30대	39	3.74	1.09		
	40대	6	3.00	1.67		
	50대 이상	3	3.67	1.53		
학교급	중학교	39	3.77	1.06	t=1.269	p=.210
	고등학교	17	3.35	1.27		

교육경력	5년 미만	23	4.13	0.76	F=5.324**	p=.001
	5-10년	24	3.46	1.10		
	11-15년	4	3.25	1.26		
	16-20년	2	1.00	0.00		
	20년 이상	3	3.67	1.53		
융합교육 운영 경험	있다	32	3.44	1.13	t=-1.585	p=.119
	없다	24	3.92	1.10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있다	29	3.52	1.21	t=-0.856	p=.396
	없다	27	3.78	1.05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33	3.67	1.24	F=0.027	p=.974
	보통	21	3.62	0.92		
	낮음	2	3.50	2.12		

** $p < .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와 음악교사들의 융합수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인식’,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성별, 연령대, 학교급, 교육경력, 융합교육 관련 연수 경험,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현재 담당하는 주당 음악교과의 수업 시수)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이해가 부족하여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와는 달리 교사들의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융합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교사의 인식 부족에서 찾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별 인식실태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의 세부 문항 중 ‘예술, 과학, 인문학적 상상이 결합한 학습방식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계발한다’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인구통계학 특성별로는 음악교육 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의 인식이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 문항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융합교육에서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여러 자원은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11-15년 교육경력의 교사가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예술 및 인문사회 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올바른 세계관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음악중심융합교육이 필요하다, 현상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는 교육경력이 11-15년 정도의 교사들은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있었던 2010년 이후부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향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생각하는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로 인해 음악수업에 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음악교과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악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각 지역의 교육청 및 연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육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인식에서는 교직 경력에서 교사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설문 항목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이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발전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는 편이었다.

문항별 실태를 살펴보면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다른 교과 중심 융합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현황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백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업 내용’의 백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음악교사가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구성할 때 음악교과 특성에 따른 실기(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등), 감상, 창작, 생활화 영역과 다른 교과의 이론적 내용을 융합하는 데 있어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차별성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융합교육과 관련한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의 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현황에서 ‘수업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항목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장에서 음악교사가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업자료 등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인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비율이 높은

항목은 ‘암기, 입시 중심의 사고에서 창의, 인재 양성의 사고로 전환’,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참여 의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음악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것으로 학생,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 되며 학생들은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열린 사고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셋째,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에서는 직접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 음악교과와 가장 많이 융합하였던 교과로는 ‘인문학교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구성할 때 특정 교과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흥미 고려’, ‘선생님(음악교사)의 타 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 응답 현황으로 볼 때, 현재 음악 교과서에 다양한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특정 교과를 선택하여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실행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문항과 관련하여 ‘음악중심 융합수업 구상을 위한 참고 자료 및 아이디어, 정보수집의 경로는 주로 어떠합니까?’ 문항의 응답 현황으로 인터넷, SNS 등의 자료 검색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교과서, 교육청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자료로는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즉각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수업자료가 음악교사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대체로 음악교사들은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위한 교재연구에 주 5-10시간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업을 구성할 때 역동적인 학습활동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말한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교과, 주제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된다. 또한, 음악중심 융합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될 때 평가 결과의 환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통한 평가와 생활기록부 반영의 활용은 어떠하십니까?’ 문항의 응답 현황으로 ‘수행평가 및 생활기록부 작성 참고 자료 모두 활용’ 항목의 비율이 ‘78.1%’로 매우 높았다. 이는 음악교사들이 현장에서 융합수업과 평가, 생활기록부 활용 자료 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이후 느낀 어려운 점으로는 ‘과중한 업무로 수업 준비의 어려움’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업 외 행정업무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96.9%) 지속적으로 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과중한 업무와 많은 교재연구 시간에도 불구하고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제고된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 ‘교재연구(개발) 시간 부족’의 이유로 기피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음악중심 융합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83.3%)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사들의 업무 시간 내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유익한 수업을 위해서는 음악중심 융합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아주 높은 비율로 응답한 항목은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융합교육 관련 자료, 교재의 개발 및 공유’가 있었다. 앞의 내용과 종합해볼 때 전반적으로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하고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알맞은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자료,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이슈인 AI 관련 음악과 융합 교육에서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에 대한 음악활용’, ‘AI 관련 기기 활용 및 운영 방법’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구성한다는 높은 비율의 답변을 기반으로 추측해본다면 음악과에서 다양한 기기와 음악관련 사회적 이슈, 저작권 논쟁 등을 학생들이 가장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역동적인 학습활동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넷째,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음악중심 융합교육 적용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수업 시수 확보의 어려움’ 항목이,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에 대한 의지’ 항목이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융합교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현상에서는 ‘교사의 수업 및 업무 부담 증가’ 항목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주당 평균 16.2 시수’의 음악교사들이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과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기에는 시수 확보

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재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또한 많은 업무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다섯째,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은 음악중심 융합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음악중심 운영 개선을 위해 학교, 교사의 측면에서 필요한 점으로는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항목이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는 ‘교재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고 학교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적용하고자 하는 음악교사들의 의지가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업을 위해 질 높은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연구에서 볼 수 있었던 ‘가산점, 인센티브 제공’등의 지원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음악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이나 수업 구성 및 방향성 등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충분히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경감과 교재연구개발 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수업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정책적인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음악중심 융합수업 구성 및 운영 현황으로 볼 때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외 사회적 이슈, 음악적 논쟁 등을 음악과 교육과정과 결합하여 학생들이 역동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사연구회, 최신 경향이 반영된 융합수업 운영 사례 등을 포함한 연수를 시행하고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재연구 및 개발 비용 지원과 시간 확보 등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타 교과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내, 교외 교사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위주의 사고에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음악교사들의 주당 교과 운영 시수를 조절함으로써 학급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개인적 관심사 및 호기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음악중심 융합수업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음악교과가 타 교과의 융합수업에 활용되는 보조도구가 아닌 예술교과 본연의 목적을 적용하여 예술교과와 타 교과가 동등하게 융합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과가 음악교과와 융합될 수 있음에 대한 연구와 예술교과에 대한 학생·학부모, 타 교과 교사들의 인식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정정책과(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요약자료.
-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 권덕원 외(2017). 음악교육의 기초(제4판), 파주: 교육과학사
- 김경화, 장기범(2015). 음악교육의 융합교육 접근을 위한 융합 개념 논의, **한국 초
등교육**, 26(4), 211-234.
- 김미림(2016). 음악과 융합 수업을 위한 창의적인 음악극 활동 방안, 석사학위논
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수(2015).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예술교과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 연
구: 중학교 음악교과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22, 103-127.
- 김미숙 외(2015). 음악과 교재연구: 음악교육 교재·교구 개발 및 활동, 서울: 학지사
- 김민주(2022). 음악교과 기반 융합 수업 방안 연구: 창의적 사고 기법의 활용을 중
심으로, **음악교육공학**, 52, 139-159.
- 김상숙(2013), **융합교육에 대한 초등 및 중등교사의 인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
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원 외(201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이론적 모형의 제안, **한국과학교
육학회**, 32(2), 308-403.
- 김애진(2016).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실태 조사연구, 석
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김왕동(2012). 창의적 융합인재에 관한 개념 틀 정립: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관점,
영재와 영재교육, 11(1), 97-119.
- 김은진, 임병노(2012).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융복합 학문의 시대적 흐름: 음악테크
놀로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3), 102-113.
- 김정민(2014). **고등학교 음악 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교수학습지
도안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희 외(2013). 예술 교과 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 실천 방안 : 미술교과 수업 사례 중심으로,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35, 245-266.
- 김지영(2017).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음악 창작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수(2012). **STEAM 교육론**, 파주 : 양서원.
- 남지영(2013). 초등학교 음악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탐색, **음악교육공학**, 17, 63-79.
- 민경훈 외(2017). **음악교육학 총론(3판)**, 서울: 학지사.
- 박정아(2014). **음악 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교육 실태 분석 : 인천지역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제연(2017). **STEAM교육을 적용한 음악교과 수업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현(2022). 사회 변화의 관점에서 본 학교 음악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공학**, 52, 117-137.
- 박형주(2012). **통합 교육에 근거한 중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 STEAM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성혜(2012). **통합교육과 STEM교육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백성혜 외(2021).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음악교육공학**, 49, 69-93.
- 백운수 외(2011). 우리나라 STEAM 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4), 서울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백재영(2020). **중학교 음악교사의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종우(2018). **음악 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 발현에 관한 양적·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서효지(2016). **초·중등학교 영재학생들을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학습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문주(2015).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 손연아 외(2012). STEAM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인식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3(1).
- 심다영(2014). **STEAM교육을 적용한 음악과 수업지도안 개발 연구 : 고등학교 2학년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동순(2012). **학문융합 관점에서 본 융합인재교육(STEAM)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양종모(2013).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방법 탐색, **음악응용연구학회**, 1(6), 57-74.
- 양종모, 남지영(2014). 음악 중심 융합교육 수업을 위한 동료장학의 의미: 부산 Y 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3(1), 109-138.
- 오지향(2014). 융합인재교육(STEAM)의 중등 음악수업 적용 및 사례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4(1), 69-97.
- 유근혜(2021). 2015 개정 중학교 음악 교사용 지도서에 적용된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분석, **음악교육연구**, 50(1), 81-103.
- 윤성원(2020). 음악과 리터러시 연구, **음악교육공학**, 43, 1-19.
- 이계영(2014).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요구 조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새롬 외(2020).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음악교육공학**, 45, 107-126.
- 임혜숙(2022).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음악 작품속의 창의·융합 사례 고찰, **음악교육공학**, 50, 135-153.
- 정은희(2014). **STEAM 교육을 적용한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수 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조대현(2013).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이를 위한 전제조건, **음악과 민족**, 46, 267-289.
- 조대현(2017). 음악 중심 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 **음악교육공학**, 31, 21-42.

- 조대현(2020). 융합적 사고에 기초한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모델 개발: 음악과 감상영역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8(4), 119-134.
- 조정은(2018).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와 융합**, 40(3).
- 최석민 외(2014). **융합영역 학생 평가 방법 개선 및 평가모델 개발 연구**, BD14050008, 서울 : 한국과학창의재단.
- 최성희(2015). **음악중심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연구 : 경기도 소재 중학교 음악교사 인식 실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2022-11-17 시행
- 홍성령(2019). **예비 음악교사의 융·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수준 및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은지(2023).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예술융합교육 운영 사례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5(9), 1153-1164.
- 히든그레이스 논문통계팀(2017). **한 번에 통과하는 논문: 논문 검색과 쓰기 전략**, 서울: 한빛아카데미.
- 히든그레이스 논문통계팀(2018). **한 번에 통과하는 논문: SPSS 결과표 작성과 해석 방법**, 서울: 한빛아카데미.
- Bauer, W. I.(2013). “The acquisition of musical 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22(2), 51-64.
- Crow, B.(2006). “Musical creativity and the new technology”, *Music Education Research*, 8(1), 121-130.
- Dorfman, J.(2008). “Technology in Ohio’s school music programs: An exploratory study of teacher use and integration”, *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 35, 23-46.
- Falloon, G.(2020). “From digital literacy to digital competence: The teacher

- digital competency (TDC) framework”,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68(5), 2449-2472.
- Power, A. M.(2019). “Investigating the use of digital media in the music classroom with experienced and pre-service teachers”, *The Qualitative Report*, 24(5), 963-976.
- Roh, D.(2022).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flection on the class in the Covid-19 situation: Focusing on digital literacy”,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3(1), 171-202.
- Sanders, M.(2006). “A rationale for new approaches to STEAM education and STEM education graduate programs Paper”, Paper presented at the 93rd *Mississippi Valley Technology Teacher Education Conference*, Nashville, TN, pp. 30-55.
- Sanders, M.(2009). “STEM, STEM Education, STEM mania”, *The Technology Teacher*, 68(4).
- Yakman, G. G(2006). “STEM pedagogical commons for contextual learning”, Unpublished class paper for EDCI 5774, *Virginia Tech*.

부록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설문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열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존경을 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현직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현황 및 인식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에 선생님께서 경험하고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및 설문조사의 결과는 모두 익명으로 통계처리 되고,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본 연구자의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연구자: 정 지 윤

연락처: jiyun4087@chosun.ac.kr

※ 다음의 설문 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 1개를 선택하여 “V” 표시하여 주십시오.

I.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필요성(공통응답문항)

융합교육은 통합교육의 한 형태로 실생활에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주제, 문제, 학습자 흥미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학문과 교과 간 내용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능력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음악중심 융합교육이란, 융합체로서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교과 중심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 교과의 지식, 개념, 방법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 발하기 위한 음악중심의 융합교육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융합교육은 이미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 목적 중 하나로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제시하였 으며, 이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융합인재교육 본격화를 발표하여 더욱 폭넓은 형태 의 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STEAM(융합인재교육)은 과학기술공학 인재양성을 위한 것만이 아닌 예술, 경영 및 인문·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공학적 개념으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음악중심 융합교육은 예술 및 인문사회 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올바른 세계관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술, 과학, 인문학적 상상이 결합된 학습방식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계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상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융합교육에서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여러 자원을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II. 음악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인식(공통응답문항)

※ 다음의 설문 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 1개를 선택하여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학생들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음악중심 융합교육과 다른 교과중심의 융합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 목표 ② 수업 내용 ③ 교수-학습 방법
④ 평가 결과의 환원 ⑤ 기타:

4. 음악중심 융합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업 횟수는 한 학기에 몇 회(차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① 4차시 미만 ② 4-7차시 ③ 8-11차시
④ 12차시 이상 ⑤ 기타:

5. 음악중심 융합교육 도입이 우리나라 교육의 어떠한 점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상승
② 사교육비 절감
③ 창의 인재 양성 실현
④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의 실현
⑤ 기타:

6.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지속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재연구 및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
- ② 교육과정 및 수업 시수 확보의 어려움
- ③ 타 교과와 연계의 어려움
- ④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및/또는 학생들의 수업준비도 부족
- ⑤ 기타:

7.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필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융합교육 철학에 대한 이해
- ② 음악교과와 타 교과에 대한 지식
- ③ 학습내용에 알맞게 교과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 ④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 능력 및/또는 융합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
- ⑤ 기타:

8. 융합교육과 관련한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의 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융합교육에 대한 연수 실시
- ② 수업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③ 수업준비를 위한 교사의 업무 경감
- ④ 융합교육(수업)을 위한 교사의 재량권 확보
- ⑤ 기타:

9. 음악중심 융합교육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인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융합교육 철학에 대한 이해
- ②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참여 의지
- ③ 학습결과에 대한 기다림
- ④ 암기, 입시중심의 사고에서 창의, 인재양성의 사고로 전환
- ⑤ 기타:

10.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과급,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 ② 국내, 국외(해외) 연수 기회 확대
- ③ 운영 결과 관련 홍보물 배포 확대
- ④ 융합교육 참여 교사의 교무업무 경감
- ⑤ 기타:

※ 다음 ‘Ⅲ.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현황’ 관련 문항은 음악중심 융합교육 경험이 있는 선생님께서는 ‘Ⅲ-1’ 설문문항을, 음악중심 융합교육 경험이 없는 선생님께서는 ‘Ⅲ-2’ 설문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경험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 1개를 선택하여 “V” 표시하여 주십시오.

Ⅲ-1.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1. 음악과 (가장 많이) 융합하였던 교과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수리과학교과
- ② 공학기술교과(AI포함)
- ③ 인문학교과
- ④ 예술체육교과
- ⑤ 기타:

2. 위(1번 문항)의 교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음악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어서
- ② 타 교과 교사의 제안 및/또는 의지와 상관없는 강요
- ③ 학생들의 흥미 고려
- ④ 선생님(음악교사)의 타 교과에 대한 지식 이해도 고려
- ⑤ 기타:

3.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은 몇 차시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까?

- ① 4차시 미만 ② 4-7차시 ③ 8-11차시
- ④ 12차시 이상 ⑤ 기타:

4.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을 위해 선생님께서 교재연구에 소요한 시간은 어느정도입니까?

- ① 주 5시간 미만 ② 주 5-10시간 ③ 주 11-15시간
- ④ 주 15시간 이상 ⑤ 기타:

5.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구성할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 ① 음악교과의 내용 이해
- ②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 ③ 역동적인 학습활동
- ④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 ⑤ 기타:

6.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통한 ‘평가’와 ‘생활기록부’ 반영의 활용은 어떠 하십니까?

- ① 수행평가 자료로만 활용
- ② 생활기록부 작성 참고 자료로만 활용
- ③ 수행평가 및 생활기록부 작성 참고 자료 모두 활용
- ④ 수행평가 및 생활기록부 작성 참고 자료 모두 활용하지 않음
- ⑤ 기타:

7. 위의 음악중심 융합수업 운영 이후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의 전문성 부족
- ② 교수·학습 자료 부족
- ③ 한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 ④ 과중한 업무로 수업 준비의 어려움
- ⑤ 기타:

8. 최근 3년 이내 음악중심 융합수업의 운영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4회 미만
- ② 4-7회
- ③ 8-11회
- ④ 12회 이상
- ⑤ 기타:

9.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0. 음악중심 융합수업 구상을 위한 참고 자료 및 아이디어, 정보수집의 경로는 주로 어떠한가?

- ① 동료 음악 교사
- ② 수업자의 배경지식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서 관련 자료
- ③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자료 검색
- ④ 교사 연구 동아리
- ⑤ 기타:

11. 만약 선생님께서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를 받게 된다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 ① 교과 간 교육과정 연계
- ② 자료 활용 능력(디지털, AI, 영상 편집 등)
- ③ 교과서 재구성
- ④ 학생활동 및 수업 전략
- ⑤ 기타:

12. 최근 AI 관련 융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음악 교과에서 AI 관련 융합수업을 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① 저작권 및 윤리교육과 음악작품
- 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에 대한 음악활용
- ③ AI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음악적 논쟁
- ④ AI 관련 기기 활용 및 운영 방법
- ⑤ 기타:

※ 다음 ‘Ⅲ.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현황’ 관련 문항은 음악중심 융합교육 경험이 있는 선생님께서는 ‘Ⅲ-1’ 설문문항을, 음악중심 융합교육 경험이 없는 선생님께서는 ‘Ⅲ-2’ 설문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경험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 1개를 선택하여 “V” 표시하여 주십시오.

Ⅲ-2.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경험이 없는 경우

1.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기피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① 타 교과에 대한 배경지식(이해) 부족
- ② 교재연구(개발) 시간 부족
- ③ 수업 외 행정업무 증가
- ④ 평가의 어려움
- ⑤ 기타:

2. 음악중심 융합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3. 향후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조금 있다 ③ 보통이다
- ④ 학생 수업을 위해 운영할 계획이다
- ⑤ 기타:

4. 학생들은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희망할 것이다
- ② 어느 정도 희망할 것이다
- ③ 보통일 것이다
- ④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 기타:

5. 반드시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해야 한다면 운영하고 싶은 교과 영역은 무엇
입니까?

- ① 수리과학교과
- ② 공학기술교과(AI포함)
- ③ 인문학교과
- ④ 예술체육교과
- ⑤ 기타:

6. 연간 1회 이상 반드시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몇 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이상
- ⑤ 기타:

7. 향후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해야 한다면, 교육과정 편성 시 우선순위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음악교과 수업
- ②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시간)
- ③ 동아리
- ④ 방과후
- ⑤ 기타:

8. 향후 행·재정적, 제도적 변화가 생긴다면 융합수업 운영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융합교육을 위한 법제화된 시수 확보
- ② 융합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충
- ③ 융합교육 참여 교사의 교무업무 경감
- ④ 성과급,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 ⑤ 기타:

9. 위 8번 문항의 질문 외에 음악중심 융합수업을 운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융합교육 관련 자료·교재의 개발 및 공유
- ② 학부모의 이해 및 인식 제고
- ③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
- ④ 운영 결과 관련 홍보물 배포 늘림
- ⑤ 기타:

10. 만약 선생님께서 음악중심 융합교육 관련 연수를 받는다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 ① 수리과학교과
- ② 공학기술교과(AI포함)
- ③ 인문학교과
- ④ 예술체육교과
- ⑤ 기타:

11. 음악중심 융합수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학습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기(가창, 악기 연주 등) 위주의 활동
- ② 체험활동(공연 관람 등)
- ③ 배경지식 기반의 토론 학습
- ④ 창의·사고력 증진을 위한 생활화 학습
- ⑤ 기타:

12. 최근 AI 관련 융합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음악 교과에서 AI 관련 융합수업을 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① 저작권 및 윤리교육
- 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 ③ AI 관련 사회적 이슈
- ④ AI 관련 기기 활용 능력
- ⑤ 기타:

※ 다음의 설문 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 1개를 선택하여 “V” 표시하여 주십시오.

IV.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공통응답문항)

1. 음악중심 융합교육 적용의 어려움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2	수업 시수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3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1-4	음악과 평가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5	한 학급 내 학생들의 수준 차이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 음악중심 융합교육을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해야 할 부분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교과 융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2-2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에 대한 의지	①	②	③	④	⑤
2-3	음악교과 외 타 교과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2-4	융합교육 관련 연수 참여	①	②	③	④	⑤
2-5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3. 융합교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현상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교사의 수업 및 업무 부담 증가	①	②	③	④	⑤
3-2	각종 공문서 및 행사 발생	①	②	③	④	⑤
3-3	학생의 수업 부담(과제 및 평가 등) 가중	①	②	③	④	⑤
3-4	교육과정 개편,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5	융합교육에 맞는 평가 체계에 대한 혼란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의 설문 문항을 읽으신 후에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 1개를 선택하여 “V” 표시하여 주십시오.

V.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공통응답문항)

1. 음악중심 융합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창의적 사고력	①	②	③	④	⑤
1-2	실생활 적용력	①	②	③	④	⑤
1-3	감성적 체험	①	②	③	④	⑤
1-4	예술성 개발	①	②	③	④	⑤
1-5	타교과간의 연계	①	②	③	④	⑤

2.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학교/교사)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재량권 확보	①	②	③	④	⑤
2-2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①	②	③	④	⑤
2-3	융합교육을 위한 법제화된 시수 확보	①	②	③	④	⑤
2-4	수업 준비를 위한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①	②	③	④	⑤
2-5	학생, 학부모의 이해 및 인식 제고	①	②	③	④	⑤

3. 음악중심 융합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교육청/국가)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동료 장학 및 컨설팅 장학	①	②	③	④	⑤
3-2	교재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3-3	성과급,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	①	②	③	④	⑤
3-4	국내, 해외 연수 참여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3-5	융합교육 전담교사 양성	①	②	③	④	⑤